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1월 19일 월요일 제1071호

대기업 '3월 신용등급 대란' 온다

신평사, 정기 신용평가 조기 진행 기업들 초긴장
"유동성 위기 계열사 재평가" 도미노식 강등 우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등급 강등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업계(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가 올해도 적잖은 크레디트 이슈로 지난해처럼 오는 3월부터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통상 정기 신용평가는 6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것이 관례지만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진 대기업 계열사가 급증하는 탓에 몇 개월씩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연초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대기업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면서 도미노식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신평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면서 기업 신용등급 현실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올 상반기부터 기업 회사채의 독자신용등급제도 시행도 추진되면서 대기업 계열사 신용등급의 연쇄 강등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업계는 오는 3월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기업에 대해 대대적 신용평가 작업에 돌입한다. 지속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 철강, 조선 등의 업종 외에 최근 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 업체의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신평사 관계자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라 직접적 관계사는 물론이고 여타 기업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특히 채권은행의 건전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쳐 올해 정기 신용평가 초점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기업 계열의 신용도 재평가에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평가대상인 사업 안정성이나 실적 변동성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동부, 현대, 한진, 두산, 대성그룹에서만 17개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동부와 현대그룹 계열은 투기등급으로 강등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말 올해 26개 업종별 신용등급 전망에서 반도체만 긍정적이고 나머지 업종들은 둔화, 부진 등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정유, 건설업은 지난해보다 경영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는 독자신용등급제도 역시 도미노식 신용등급 강등을 예고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량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감안한 최종 신용등급과 함께 해당 회사 자체의 독자신용등급이 표기된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회사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무보증 회사채 규모는 약 46조원대로 신용등급 A급 이하인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만 21조417억원으로 전체의 45%에 달한다. 당장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연명해 온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 한계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철우 기자 acw@

국내기업 수익성 어쩌다가…

순이익률 3년새 2.9%P 하락… 주요국 중 칠레 이어 2번째

최근 3년 사이 국내 기업의 순이익률 하락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익률 하락으로 국내 증시 수익률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세 번째로 부진했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부진 → 기업 수익률 악화 → 증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한국 기업의 순이익률은 2.9%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주요 25개국 가운데 칠레(-3.6%포인트)에 이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과 칠레 외에 2%포인트 넘게 수익성이 떨어진 국가는 브라질(-2.6%포인트)뿐이다.

국내 기업의 순이익률은 2013년을 기점으로 신흥국과 전 세계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작년 국내 기업의 순이익률은 5.5%로 전 세계(7.9%)와 신흥국(5.9%) 평균에 못 미쳤다. 2013년에도 한국은 5.5%로 전 세계(7.7%)와 신흥국(6.1%) 평균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졌다. 2012년에는 한국 순이익률이 7.6%로 전 세계(7.5%)와 신흥국(6.4%)보다 높았지만 역전된 것이다.

황윤주 기자 hyj@

2012~2014년 주요국 수익성 추이
※출처: 톰슨로이터 · LIG투자증권

국가	순이익률 변화	주식시장 수익률
칠레	-3.59%p	-15.07%
한국	-2.92%p	8.44%
중국	-0.08%p	18.12%
미국	0.76%p	56.91%
일본	1.33%p	83.99%
신흥국 평균	-1.09%p	11.74%
전세계 평균	0.24%p	40.63%

주말 3만8000명 방문 '떴다방'까지… 마곡 분양열기 후끈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견본주택 앞에서 이동중개업소(떴다방)가 영업을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날부터 3일간 3만8000여명이 견본주택을 찾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연합뉴스

제2롯데월드 셀프 안전감시?



안전점검 용역담당 '건축시공학회'
롯데건설 고위임원이 부회장 맡아
회사도 학회 특별회원 등재

제2롯데월드의 콘크리트 관리 및 안전점검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건축시공학회(이하 시공학회) 회장단에 롯데건설 고위 임원이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롯데건설이 해당 학회의 '특별회원'으로 등록된 것도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19일 국내 시민단체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 석희철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임시개장된 롯데월드몰의 콘크리트 안전점검 용역을 맡은 한국건축시공학회의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석 본부장은 지난해 잠실 주변 싱크홀 발생과 제2롯데월드 근로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롯데건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현재 제2롯데월드 관련 사안에 그룹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지난 2001년 5월 학계와 건설업계가 공동으로 창립해 현재 회원수 4000여명을 거느린 학회다. 주로 건축 구조물의 생산, 시공, 재료,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연구자 모임이다.

또 롯데건설이 해당 학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롯데건설이 학회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자사 고위 임원이 회장단에 속해 있는 한국건축시공학회가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용역기관으로 적절한지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롯데는 지난해 롯데월드몰 식당가와 천장 구조물 균열, 지하주차장 대규모 균열 등에 대해 한국건축시공학회를 앞장세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지난 2일 제2롯데월드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균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학회의 전임 학회장인 한천구 교수(청주대)는 이날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롯데월드 주차장에서 발생한 균열은 건조현상과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 균열"이라며 "구조와 관계없는 균열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학계 일부에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학회인 대한건축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등을 제쳐 놓고 굳이 한국건축시공학회 의견만 받은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은 공정한 입찰을 통해 진행된 만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콘크리트 균열과 시공부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국건축시공학회가 가장 전문적"이라며 "회사 관계자가 포함된 것도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론과 실무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현대차, 한전부지 건축계획서 3월 제출

5조 투입 105층 신사옥 건설 가속도… 정부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폭 지원

현대자동차가 5조원을 공사비로 투입하는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대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의 역량이 집중된 태스크포스(TF)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상반기 중 건축계획을 완료할 방침이지만, 이르면 3월 서울시에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건축계획서에 105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에 자동차 테마파크, 국제회의장, 호텔 등의 설립안을 담는다.

현대차는 최근 국내외 설계회사를 상대로 이 부지의 기초 설계 공모에 들어갔다. 1개월여간의 공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가 105층 쌍둥이 빌딩을 지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전부지에 세울 현대차 신사옥은 2016년 착공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한전부지 개발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통상 2~3년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1년으로 줄여 2016년에는 투자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신사옥은 2023년에서 2년 앞당긴 2021년 완공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이 밖에도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 3개 상업지구(캠프킴·유엔사령부·수송부지) 개발 계획을 오는 4월 승인하는 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았다. 이 중 캠프킴 부지에는 용적률이 800% 이상 적용돼 지상 5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개발이 본격화되면 50층 이상 건물이 최대 8개동까지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에 국내 대기업의 최대주주 참여를 허용했다. 삼성과 현대차도 카지노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2곳을 조성한다. 리조트 한 곳에는 1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같은 곳에는 법률상 외국인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내국인의 컨소시엄 형태까지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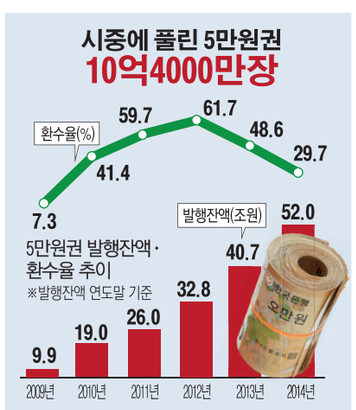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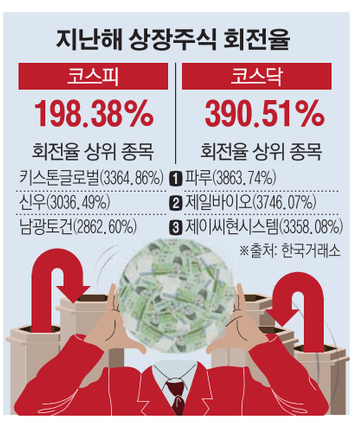
시중유통 5만원권 1인당 20장 수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1인당 20장을 넘어섰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행 첫해인 2009년 말 5만원권 시중 발행 잔액은 9조923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늘어 2014년 말에는 52조34억원으로 집계됐다.

5만원권을 장수로 보면 작년 말 10억4000만장으로 국민 1인당 20.6장으로 20장을 처음 넘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화폐 중 5만원권의 비중은 7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상장주식 회전율 3년새 최저

지난해 상장 주식 회전율이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주식 회전율을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은 198.38%로 조사됐다. 전년도(236.14%)에 비해 37.7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은 상장 주식 1주당 약 1.9번 매매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코스닥시장의 상장 주식 회전율은 390.51%로 전년 463.22% 대비 72.71%포인트 감소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Biz 월요섹션 17~21면

커버스토리
디트로이트 모터쇼



김기식 의원 ▶4



임채운 이사장 ▶13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석화·정유·태양광 '적신호'… 현대상선·한진해운 '예의주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대기업 가운데 이상징후가 발견된 곳이 1~2곳에 이른다."

한 시중은행의 대기업 여신담당 임원의 말이다. 연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을 필두로 금융권에 대기업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대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올해 1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고공행진할 전망이다. 특히 경기민감 업종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부실 발생 압력이 잠재하고 있는 탓에 지난해보다 신용위험이 더욱 악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엔화 약세·유가 하락… 3개 취약업종 재무위험에 노출
채권단, 대기업 1~2곳 이상징후 감지… 동부 위기 지속
은행권, 1분기 신용위험지수 19 전망 2009년이후 최대
상반기 경기악화땐 신용강등·구조조정 수요 늘어날듯

실제 금융권에서는 지속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 철강, 조선업종 외에 유가 급락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업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가 하락에 석유화학업체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0년 6.7%, 2011년 5.4%에서 2013년 4.6%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기업 경영 여건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가운데 이들 한계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이 평가한 1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19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2009년 1분기(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위험지수가 높다는 것은 대기업 여신 중 부실채권으로 분리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지속적 엔화 약세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일부 대기업의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인해 대기업 신용위험지수가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곧 자금을 구할 곳 없는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을 연출한다. 연초부터 신용위험이 부각되면서 은행권은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전 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대출 의지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은행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실패한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으로 급한 불을 끄려 하지만,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적 신용등급 하락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을 연출한다. 지난해 말부터 석유화학, 정유, 철강, 건설, 조선 등 모니터링이 이어져 온 업종의 기업들이 잇따라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강등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한계 기업들의 신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희박해 채권단인 은행이 회사채 상환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 우량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금조달 실패로 회사채를 제때 갚지 못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진 상태"라며 "잘나가던 기업도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데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에 직접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경기악화에 따라 신용등급이 추가 강등되고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주도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와 한진그룹도 독립적 자생 능력을 회복하기에는 대내외적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올해 만기 도래하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신속인수제를 활용해 상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방안 역시 불투명하다.

채권단은 올해 상반기 내부적으로 대기업 여신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치열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주채무 계열사 가운데 취약한 계열사와 맺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경 발표될 대기업 주채무 계열 지정도 지난해 42개에 이어 올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채무 계열은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대출이 있는 그룹사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을 가려 5월말까지 채권단과 약정을 체결한다.

안철우 기자 acw@

주요 석유화학, 태양광 업체 신용등급 변동 현황
(2014년 12월 기준)

업체명	NICE신평	한기평	한신평
LG화학	AA+ / S	AA+ / S	AA+ / S
롯데케미칼	AA+ / S	AA+ / N	AA+ / S
SK종합화학	AA / S	AA / S	AA / S
삼성토탈	AA / 하향검토	AA / N	
OCI	AA- / N	AA- / S	AA- / S
삼성정밀화학	AA- / N		AA- / N
한화케미칼	A+ / S	A+ / S	
여천NCC		A+ / S	A+ / S
SKC	A / S	A / S	A / S
대한유화공업		A- / S	A- / S
금호석유화학	A- / S	A- / S	A- / S
한솔케미칼	A- / S	A- / S	A- / S
금호피앤비화학	BBB+ / S	BBB+ / S	BBB+ / S

업체명	NICE신평	한기평	한신평
이수화학	BBB / N	BBB / S	
SK에너지	AA+ / N	AA+ / N	
SK인천화학	AA+ / N	AA+ / N	
GS칼텍스	AA+ / N	AA+ / N	

*S=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 N=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자료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공시

올해 주요 취약산업 기업 신용등급 전망
단위 :개

업종	부정적	긍정적
철강	6	1
건설	3	
화학	3	

업종	부정적	긍정적
조선	1	
정유	3	
기타	4	

※자료 : 한국기업평가



올해 회사채 '46조 만기폭탄' 째깍째깍

신용등급 'A'이하만 21조… 자금조달 '피 마른다'

작년 41조2000억서 11% 급증
1분기 13조5000억 '발등의 불'
기업 줄도산·금융사 부실 우려
당국, 신속인수제 연장 '글쎄…'

올해 만기 도래하는 무부증 회사채 규모가 약 46조원대에 육박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려는 한계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무엇보다 신용등급 A급 이하인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만 21조417억원으로 전체의 45% 달해 해당 기업들은 말 그대로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연명해 온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 한계 기업들의 자금조달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금융당국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만기도래하는 무보증 회사채 규모는 약 4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1조2000억원보다 11%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A급 이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15조2424억원, BBB+ 이하 등급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6조1748억원에 달해 약 24조1500억원의 회사채가 투기등급 이하 채권으로 분류된다. 만일 이들 기업들의 회사채 차환이 여의치 못할 경우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업황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잇따라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부그룹 계열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부CNI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95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다. 동부하이텍의 최대주주인 동부메탈의 경우 올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1520억원에 달한다. 동부팜한농은 올해 총 17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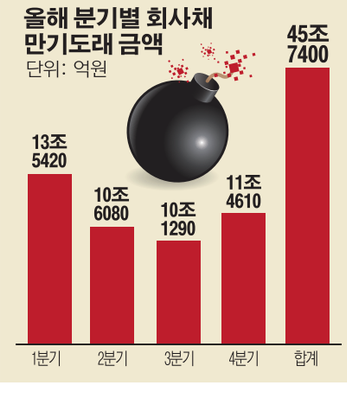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그룹과 한진그룹 등도 대규모 회사채 상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7816억원으로, 기업어음 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816억원에 달한다. 한진그룹은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총 1조8950억원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외화채권을 포함해 1조3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한진해운과 한진의 회사채 만기도래 금액은 각각 7000억원, 1600억원 규모다. 특히 2월과 3월에 9850억원, 총 1조원에 달하는 회사채 상환이 집중돼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한계 기업들의 신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희박해 채권단인 은행권이 회사채 상환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개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채권은행 한 관계자는 "이들 한계기업들의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영업활동을 통해 부채를 갚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조선과 건설·해운은 물론이고 철강과 석유화학, 태양광 등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올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을 시장에서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올해 분기별 회사채 만기도래 금액
단위: 억원



동부, 한진, 현대그룹 회사채 만기금액

그룹	계열사	신용등급	회사채
동부	동부제철	B+	2842억원
	동부C&I	BB-	950억원
	동부건설	B+	1630억원
	동부팜한농	BBB+	1700억원
	동부메탈	BB-	1020억원
한진	대한항공	A-	1조350억원
	한진해운	BBB-	7000억원
	한진	A-	1600억원
현대	현대상선	BB+	1조816억원
	현대엘리베이터	BB+	1500억원



벽으로 이어진 바닥 균열 '치명적'… "123층 세월호 될수도"

본지 기자, 10일간 상주취재

이달 21일은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해 있는 제2롯데월드가 임시 개장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다. 임시개장 후에도 제2롯데월드에서는 아쿠아리움 누수와 영화관 진동, 지하주차장 균열 등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본지가 이달 초부터 직접 현장을 둘러봤을 때도 건물 내에서는 새로운 균열과 누수 등이 수없이 발견됐다.

롯데 측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롯데월드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었다. 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수였다.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은 '불안'이라는 지반 위에서 여전히 '모래성'처럼 세워지고 있었다.



롯데월드몰 지하 6층 바닥에서 생긴 균열이 벽으로 이어져 있다.


명품관 1층~지하 1층 사이 직원용 계단 통로 벽에서 발견된 균열. 2층과 3층 계단에서도 같은 구간에 가느다란 균열이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4층 Y4구역에서 발견된 누수. 기자가 방문한 13일 처음 발견된 이후 14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 아래에 정수기 물통(오른쪽)을 놔뒀을 뿐이다.

지하주차장·매장 등 30곳 균열
수족관 방향 주차장 천장 누수
영화관 이어 2층매장서 또 진동

개장 초반보다 고객 30% 이상 뚝
고객차량보다 공사차 더 많이 보여
내부 직원들도 "불안하다" 하소연

◇이어지는 보수 공사… 건물 곳곳서 새로운 균열 발견돼 =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를 처음 찾은 것은 지난 7일.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제2롯데월드 간 연결통로는 평일임에도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맞은편 롯데백화점 잠실점 쪽의 많은 인파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상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잠실역 교차로에서 잠실호수교까지 제2롯데월드 타워와 버스환승센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보행자 도로를 막고 펜스를 세워놓은 탓에 시민들은 차도 갓길에 마련된 임시 보행통로를 이용해야 했다.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최근에 대규모 균열이 발견된 지하주차장부터 찾았다. 주차장은 썰렁하다 못해 황량하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차량이 없었다. 방문객 차량보다 오히려 공사업체 차량이 더 많이 눈에 띄였다. 지하 3층 물류 하역장 차량과 공사 자재를 나르는 차량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지하 6층은 자재들이 가득 메우고 있어 주차장이라기보다 '자재 창고'에 가까웠다.

문제가 된 주차장 바닥의 균열은 롯데 측이 1월초 에폭시로 메운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주차장 벽에서도 균열을 새롭게 찾을 수 있었다. 7일 하루 동안 발견한 벽면 균열만 30여곳. 일부 균열은 명함보다 두꺼운 주민등록증이 꽂힐 정도로 패어 있었다. 균열들은 일정하게 벽면을 타고 아래에서 위로 벌어져 있었다. 대부분 2m 이상의 길이였으며 천장까지 닿거나 바닥 균열이 벽으로 이어진 곳도 있었다.

누수가 발생한 상황도 포착됐다. 13일 지하 4층 주차장 천장에서는 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누수로 영업이 중단된 아쿠아리움 방향이다. 다음날 같은 곳을 찾았지만 누수는 계속됐고 수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바닥에 정수기 물통을 가져다 놓은 게 전부였다.

롯데 측은 지난 13일 작업 인원을 동원해 벽면 균열을 하얀색 페인트로 덧칠했다. 작업이 끝난 벽면에는 수많은 하얀색 선들이 지저분하게 그려졌다.

균열은 매장이 들어선 층에서도 발견됐다. 14일에는 명품관 계단통로와 쇼핑몰 1층, 3층의 의류매장 천장에서 균열이 보였다. 15일에는 2층 여성의류 매장에서 건물에 진동이 느껴져 직원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본사 직원들도 오기 싫다 하더라" = 건물 바깥도 불안감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8일에는 제2롯데월드 주변 세 군데서 지반침하가 발견됐다. 송파대로 제2롯데월드 롯데몰 앞과 석촌호수로 본가설렁탕 앞, 삼학사로 서울놀이마당 교차로다. 세 곳 모두 제2롯데월드에서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고객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롯데물산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일평균 방문객 수는 10월 약 10만8000명에서 11월에는 9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지난달인 12월에는 7만여명으로 급감했다. 개장 초반보다 고객 수가 30% 이상 줄어든 셈이다.

제2롯데월드 입점 직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쇼핑몰 3층에 위치한 잡화점 매니저 박모(42·여)씨는 12일 내부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도 불안해서 주변에 오지 말라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매출은 개장 초기와 비교할 때 5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는 "본사 직영 브랜드의 경우 직원들이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더라"고 전했다.

◇123층짜리 세월호 들어설지도… 원점 재검토 절실 = 이같은 안전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자, 전문가들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균열과 누수가 하나의 현상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롯데 측이 내세운 건조 수축이 아니라 지하수 유출 과정에서 가해지는 양압력이나 지반, 설계상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공사 초반부터 지적된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세월호 참사도 안전 불감증에서 빚어진 인재(人災)였다"며 "롯데와 서울시가 이대로 안전 문제를 덮는다면 123층짜리 세월호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철규·유지만 기자 yoonck@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사해야"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기간에 비해 균열 수 많고 방향성 보여



"롯데에서 말한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라면, 이런 모습일 수가 없어요." 지난 17일,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은 제2롯데월드 내부에서 발견된 균열에 대해 "건조 수축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건물 위에서 받는 하중과 처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안 교수는 현재 초고층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건물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자격 등을 보유한 국내 최고 권위자다.

안 교수는 일반적인 건조 수축과 다른 이유로 균열의 수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일반적인 건조 수축 과정에서 생기는 균열은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다. 또 개장 기간에 비해 숫자도 너무 많다는 설명이다. 본지가 최근 제2롯데월드에서 발견한 주차장 벽면 균열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 있었다.

그는 "건물의 변위(처짐)에 대해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차장의 경우 차를 댈 공간 확보를 위해 기둥 사이의 스판(SPAN·공간)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곳이 처지면서 갈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차가 거의 없는 지하 4층과 5층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온도 변화가 적은 지하라는 점이 그에 대한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2층 매장에서 발견된 진동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안 교수는 "진동이 계속될 경우 '피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동을 일으키는 건물 시설물 전체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 측이 건축시공학회를 통해 '코어링 검사(콘원통 모양으로 콘크리트 일부를 채취해 검사하는 것)'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안 교수는 "지름 10cm 크기로 23곳을 파내 검사했다는 것인데, 고작 2.3m 검사했다는 의미"라며 "극히 일부만 검사해 전체를 안전하다고 단정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코어링'이란 압축강도를 검사하는 것이지, 균열을 보는 것이 아니다"며 "건물 바닥과 벽면에 대한 전체적인 초음파 검사를 해야 정확하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균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한 한천구 전 건축시공학회장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구조 전문가가 아닌 재료 전문가라 분야가 맞지 않는다"며 "마치 수영선수가 야구경기에 출전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롯데가 건축시공학회의 입만 빌려 '안전하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타워가 완공돼 본격 오픈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투자활성화 주요 내용

구분	과제	주요내용	투자 금액
관광호텔 확충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추가 공급 및 호텔리츠 활성화	산업은행 지분투자와 신용보증기금 확대, 장기 투자 인프라 구축	1조2000억원
시내면세점 확대	4곳 추가 허가	서울 3곳, 제주 1곳(대형 2곳, 중견 2곳)	3000억
현장대기 프로젝트	용산 부지 개발	고밀도 개발 등 주한미군 이전 부지 개발 방식 관련 서울시–국방부 합의	5조
	한전 부지 개발(현대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내년부터 착공	5조
	아산산업단지 OLED라인 증성 지원(삼성디스플레이)	산단 간선도로 조기 건설 및 수용 사용료 원가수준으로 책정	4조
복합리조트 조성	연내 2개 허가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개발 시 국내 투자자 지분 제한 규제 폐지 등	2조
판교 개발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구상 확정	도로공사 이전 부지 주변을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	1조5000억
도시 첨단 사업 단지	6곳 추가로 조성	대전 유성(바이오), 경기 남양주(신재생에너지), 울산 중구(자동차), 전남 순천(광양만원 연구개발), 제주(IT), 경북 경산(IT)	3조

대기업 카지노 허가·복합리조트 신규 유치…

"25조 투자효과"…국회 문턱 넘을까

관광인프라·기업혁신 투자활성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 추가 공급
서울 3곳·제주 1곳 시내면세점 신설
관광진흥법 등 8건 법 제·개정 필요
난개발·중복투자 우려 속 입법 걸림돌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은 관광 등 유망산업과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크고 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뒀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혁신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2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8건의 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이번 투자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수요를 통해 내수시장을 키울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호텔, 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은 내수 활성화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시장의 소비 촉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 관광객을 국내로 불러들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서울의 시내면제점 신규 개설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들어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쇼핑 수요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복합리조트도 2곳 정도를 신규로 유치하고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카지노 등이 들어가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자본뿐만 아니라 내국인 자본도 유입될 수 있게 바꿨다.

그러나 정부가 성급하게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영종도에 이미 짓고 있는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아직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지 확실치 않고, 중국이 카지노 관광을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한다.

정부가 국내 재벌에 카지노 사업 특혜를 줬다는 시비도 일 수 있다. 새로 지을 복합리조트의 투자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자본은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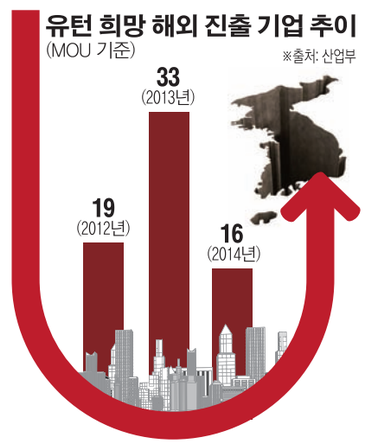
이 같은 우려와 함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실행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역시 만만치 않다. 이번 대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건의 법률 제·개정이 진행돼야 한다.

정부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호텔 5000실 증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30개 법안 중 12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부미 기자 boomi@

맥 못추는 기업U턴 정책

세제혜택·지원 확대에도 작년 업무협약 16곳…전년의 절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유치, 이른바 '유턴기업' 정책이 맥을 못 추고 있다. 관련 법과 추가 대책, 예산까지 확대했지만 돌아오는 기업은 대폭 줄어든 양상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여건 조성을 위해 유턴기업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듬해 12월엔 유턴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유턴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본격 시행에 나서기도 했다.

유턴법엔 법인세, 관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산단우선입주권, 외국인력 고용 등의 혜택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기존의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제도를 보완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해외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도 1500억원이나 늘려놨다.

하지만 정작 유턴법과 각종 추가 지원책이 추진된 지난해는 국내로 유턴을 희망해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이 16곳에 불과했다. 이는 유턴기업을 처음 집계한 2012년 19곳보다 적은 수치다. 또 33곳을 기록한 전년에 비해선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복귀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 또한 43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중국 등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철수를 공공연히 할 경우 해외정산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현재 유턴 희망 수요 중 90%는 중국 진출 기업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가 줄어든 것도 눈치 보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동차와 액정표시장치(LCD), 철강 등의 품목이 양허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산업에 부수된 중소, 중견기업이 실익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정부의 유턴기업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의가 300여곳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2.7%는 '제조업 공동화 속도가 비슷하거나 더 빨라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점차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17.3%에 불과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칭찬합시다 김용태 의원이 추천한 김기식 의원

"독하고 질기고 철두철미"

법안심사소위서 3년간 함께해
다방면서 왕성한 활동 '일벌레'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바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가장 독하고, 가장 질기고,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3년여간 함께했고, 특히 최근 1년여는 여야 간사로 호흡을 맞추면서 느낀 것이라고 말한다.

김용태 의원은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심사 때 보통은 자신이 관심 있거나 전문 분야는 열심히 준비해 정부 관계자와 거의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지만 관심이 덜한 부분은 밀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김기식 의원은 본인뿐 아니라 보좌진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정부 인사들과 대등하게 토론하거나 어떤 면에선 압도한다"고 평했다.

이어 "김기식 의원과는 세상을 보는 관점도, 세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다를 때가 많아서 매일 싸우지만 그럼에도 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준비해 오고 실행해내는 데엔 놀랄 뿐"이라며 "저는 도저히 실력으로 상대가 안 된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이 이렇듯 겸양을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김기식 의원은 그야말로 일벌레로, 다방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시민사회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국회에 입성한 후엔 당내 진보·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들을 규합해 '더좋은미래'를 만들었고, 현재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발족도 준비 중이다. 당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데다 당 정치혁신실천위 간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19대 하반기 국회에 들어 초선으로선 이례적으로 정무위 간사를 맡은 그는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의 협의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신용정보보호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15억4000만달러

작년 해외직구, 역직구의 55배

지난해 국내에서의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 금액이 역직구의 55배로 무역 역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553만1000건, 15억4491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로부터의 직구(역직구)는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5400건, 2808만7000달러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는 15억1682만8000달러에 달했다.

직구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도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만 직구 규모가 전년보다 건수로 39.1%, 금액으로 48.5% 각각 증가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건수로 330%, 금액으로 463%나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자상거래 무역 적자도 2010년(2억7212만7000달러)에 비해 5.6배 증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생산자물가 5개월째 '뚝'

12월 103.23…전달보다 0.9% ↓
저유가 여파…2010년이후 최저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국제유가 급락으로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4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물가'를 보는 것으로,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가 지난해 12월 103.23을 기록, 한 달 전보다 0.9% 하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생산자물가는 2010년 12월(102.71) 이후 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하락폭도 2012년 6월(-1.2%) 이후 2년 6개월 이래 최대다. 연간으로 지난해 생산자물가는 0.5% 하락했다.

임수영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국제유가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생산자물가가 지난해 12월 전달보다 하락세가 3배나 확대됐다"며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이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0.9%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정치도 경제도 질주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스마트 빌딩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시승하고 있다. 뉴시스

'신의 직장' 공공기관 2연속 성과부진자 퇴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전문계약직·중기성과급 도입
노조 "노동개악…민간 확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 성과주의 확산 과제 주요 내용

2진 아웃제	2급 이상 간부직, 업무 성과 2년 연속 부진하면 퇴출
전문계약직	기관장이 1급 이상 최상위직(임기 2년) 성과 계약
성과연봉제 확대	성과연봉제 대상, 부장급 이상에서 7년차 이상 근속자로 확대
중기성과급 지급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을 중기사업 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
임금피크제 확산	2016년 정년 연장 대신 임금피크제 도입 적극 유도
능력중심 채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으로 스펙보다 능력 중시
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	전문 · 퇴직인력,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 유사기관별 인재 DB 구축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방만경영에 이어 인사·보수체계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죈다. 2년 연속 성과가 부진한 간부는 퇴출시키고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받는 성과연봉제도 대폭 확대한다. 기관장의 성과급을 임기 후까지 쪼개서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와 1급 이상의 고위직을 임기 2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연공서열식 급여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공공부문에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내부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주의가 확산되면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의 무풍지대이던 공공기관에도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게 된다.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노조 반발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2회 연속 최저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을 다른 기관이나 유사 회사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며 부장급에 해당되는 2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하위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에 따라 연봉이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성과연봉제의 적용 대상을 2급 이상 간부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급 등 최상위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성과가 뛰어난 경우 성과에 따라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계약직제도도 도입된다. 중장기 경영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관장의 성과급 일부를 임기 후 나눠 받게 하는 '중기 성과급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성과 중심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으로 인한 과잉 기능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할 계획을 밝히면서 인력 감축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성과자 퇴출이 인력 구조조정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계약직' 도입도 일 잘하는 간부를 빨리 승진시켜 주겠다는 의도지만 결국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조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로 공공기관 노동자부터 노동개악을 시작해 민간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을 없애고 공공부문 노동자를 쥐어짤수록 민간의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고 내수활성화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靑 특보단장 서청원 최고위원 물망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소통강화 차원에서 제시한 특보단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여권 안팎에선 신설되는 특보단의 정치적 비중을 감안, 친박계 최다선인 서청원〈사진〉 최고위원을 특보단장에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애초 주류 측에선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최고위원이 행정부로 자리를 옮겨 당청간 가교 역할을 하는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특보단 구성으로 방향을 잡으며 서 최고위원이 특보단장을 맡는 형식이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서 최고위원이 특보단장 물망에 이미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현직 의원 두세 명 정도가 추가로 특보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수석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친박 중진 김성조 전 의원과 이성헌 전 의원을 비롯해 19대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현기환 전 의원 등이 유력한 특보 후보다. 대야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지난 대선 캠프에 합류한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이사장이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기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미영 기자 bomnal@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악몽'으로?

"맞벌이 공제 몰아주단 손해 올핸 균등배분이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세표준 따른 국세청 안내는 잘못" 납세자연맹 "결정세액 축소 바람직"

특히, 연맹은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만약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남편 세금은 줄어들지만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절세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이 연맹 측의 설명이다.

또한 연맹은 연봉 4000만원 남편 A씨와 연봉 3000만원인 부인 B씨가 남편의 모친(62)과 아들(7), 딸(5) 3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A씨의 보험료와 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 합계가 75만원, B씨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6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예를 들었다.

이때 부양가족을 모두 남편 A씨에게 몰아서 받는다면 A씨의 결정세액은 0원, 아내는 33만9000여원이 된다. 반면 모친과 딸을 A씨 쪽에서 공제받고 아들에 대한 공제를 B씨가 받도록 하면 부부의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이 돼 절세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으로 절세를 권유하면 안 된다"며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강하게 반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한쪽에 부양가족을 몰아 공제를 받는 게 좋다고 안내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납세자 별로 공제방법에 따른 절세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전제했던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납세자연맹은 "개인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고, 또 공제효과에 따른 증세 편차가 아주 크다"며 "새로 생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檢 '한전부지 고가매입' 정몽구 회장 불기소

검찰이 한전부지를 지나치게 고가에 매입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당한 정몽구(77) 현대자동차 회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9월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인수전에 참여해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격 3조3346억원의 3배에 달하는 10조5500억원을 제시해 낙찰 받았다. 소액주주 A씨는 정 회장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써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간 현대차의 '10조원 베팅'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부지 낙찰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급락했다. 입찰을 결정한 지난해 9월 17일과 26일 그룹 이사회에 정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불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좌영길 기자 jyg97@

감사원 "4대강 졸속추진… 비용문제 심각"

4대강사업이 사업 결정 방식부터 사후 대책까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공은 이후 불과 3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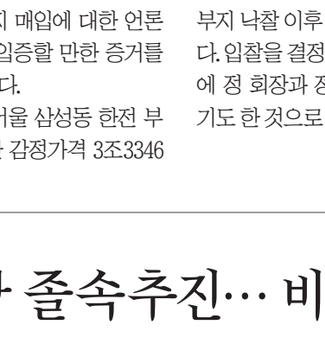
보고서는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수공은 4대강사업이 치수사업이고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치수사업을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문제와 관련해선 4대강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었다.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이라는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확실하지 않고, 지원기한과 절차, 주체 등도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중 기자 zerg@

무쇠도 자른다더니… '배반의 장미칼'

허위·과장광고로 벌금



한때 화제를 모았던 '장미칼'을 판매한 업체가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4월 케이블방송,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부엌용 칼인 '100년 장미칼'을 판매한 쇼핑업체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업체는 판매하는 칼로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에서 사용된 골프채나 자물쇠는 티타늄·무쇠보다 무른 재질로 만들어졌다. 또 품질보증기간이 100년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품질보증기간이 없었다.

이밖에 공정위는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편의장치를 과장광고한 사실도 적발해 이날 함께 제재했다. 볼보자동차 코리아는 2013년 3~9월 책자를 통해 V40(2013년식) 차량을 광고하면서 이 차량에 '어댑티즈 크루즈 컨트롤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들 업체에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제이커머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간,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중앙일간지를 통해 한 차례 각각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산천어 낚아라!… 얼음 반, 사람 반



'2015 화천 산천어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 얼음낚시터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 2003년 축제 개막 이후 17일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사진제공 화천군

'파이시티' 신탁상품 피해 우리은행 40% 배상키로

우리은행이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의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원금 40%를 배상하기로 했다. 투자 피해자가 1400여명임을 감안하면 우리은행이 물어야 할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에 달한다. 파이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예상 회수금 등을 합치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최대 80%까지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파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예상보다 인허가가 늦어진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 자금난이 심해졌다. 결국 2010년 시공사 워크아웃에 이어 지난해 10월 파이시티도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대한투자신탁운용(현 하나UBS자산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계했고 우리은행은 당시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459명에게 1900억원어치 판매했다. 피해자들이 부실판매를 주장하자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벌였고 결국 우리은행은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후 금감원 지난해 12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에 직접 이의신청한 사람은 22명이지만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 피해자 1400여명 전체도 같은 배상 방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피해農 단순지원 탈피…경쟁력 강화·수출확대 '공세적 대응'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넘자

1 FTA 파고 3중고 겪는 축산 농가
☑ 2 英연방 3國과의 FTA 대책
3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급
4 축산업 신시장 개척 필요
5 국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6 축산업 발전 전문가 지상좌담회

정부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통상 여건이 유사한 영연방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함에 따라 축산업 등 피해 농업 분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히 피해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세적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조10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가 올해 발효한다면 축산업은 앞으로 15년간 한육우 1조109억원, 돼지 5139억원, 가금 2121억원, 젖소 197억원 등 총 1조7573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뉴질랜드 FTA가 발효하면 그 피해 규모는 더 크다.

2024년까지 10년간 2조1000억 추가 투입
생산비 절감·품질 고급화 등 5개 과제 추진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규모 대폭 확대
유통구조 개선·수급관리 체계화 적극 나서
수출기반 구축 강화…친환경 축산 조성도

무엇보다 농식품부는 영연방 3국과의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분야에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축산 강화 등으로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는 경쟁력 제고 대책과는 별도로 일시적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 올해 203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10년 장기 대책은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대상의 대책 마련 워크숍과 전문가 협의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고 마련한 정책이라 의미가 깊다.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 =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업이 FTA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축산물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농식품부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절감과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5가지 과제를 마련했다.

가축비와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정부는 투·융자 규모를 기존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 연장도 기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했다. 또 지역축협 생산자단체 생축장을 활용해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해 기존 생축장 15곳을 89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 사료 직거래자금 지원도 기존 2조원보다 3300억원 추가하고 농식품 부산물인 쌀겨, 감귤박, 대두박 등의 사료 활용 지원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도 매년 2곳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구제역 발생 등 생산성 하락의 주요 요인인 가축질병에 대해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질병공제제도(가칭)'도 도입한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가축 질병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 농식품부는 축산물 물질 고급화로 수입육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 향상과 개량정보 통합제공, 돼지 종축에 대한 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등 우량 종축의 생산·공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능력 암소축군 3곳 조성, 우수 수정란 올해 200마리분을, 2018년 이후 4000마리분으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 2019년까지 '한우특성화사업단(가칭)'을 운영하고 지난해 말부터 한우에 이어 돼지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전면 시행, 음식점 원산지 품질을 강화해 국내 축산물과 수입육의 차별성을 강화한다.

◇축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효율적 수급관리 = 농식품부는 도축·가공·판매 이관체제를 구축해 유통비용 절감에도 앞장서고 있다. 먼저 한우에 대해 정부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한우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 간 계열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설치를 2022년까지 총 160곳을 신규로 지원해 한우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돈은 3곳 내외의 역량 있는 품목조합에 대해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표준 매뉴얼을 올해 개발해 식육즉석가공업을 조기 정착하고 경영컨설팅도 2019년까지 500곳에 신규 지원한다. 축종별 수급조절 협의회 활성화와 한우 수급모형, 낙농통계관리시스템, 가금가격조사와 생산정보시스템 등 관측·통계 정비도 추진한다.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 농식품부는 FTA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자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수출 유망품목을 가공품, 열처리제품 등 중점관리품목으로 설정해 검역조건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수출업체에 대해 260억원 규모의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또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올해 20곳을 기본모델로 정립해 6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와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해 분뇨와 악취를 적정처리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축산물 공급을 활성하고자 유기인증 지원한도를 농가당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다. 내년에는 동물복지 직불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 정치권과 협의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1.8%로 낮추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도 현행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축산 품목별 생산 감소 추정액

구분	연평균(억원) 계	호주	캐나다	15년 누적(억원) 계	호주	캐나다
한육우	674	630	44	10,109	9,454	655
돼지	343	142	201	5,139	2,127	3,012
낙농	13	13	–	197	197	–
가금(닭·오리)	142	114	28	2,121	1,701	420
소계(기타 포함)	1,172	899	273	17,573	13,479	4,094

총 투융자계획('15~'24) (단위: 억원)

구분	한·미/한·EU 사업(16개)	계속사업(5개)	신규사업(13개)	합계(34개)
기존계획	90,235	4,032	–	94,267
추가지원	13,122	1,367	6,997	21,486
합계	103,357	5,399	6,997	115,753

한·영연방 FTA 재정 지원대책의 구성

('15~'24)
기존 9.4조원
① 한·미 대책: 1.2조원('15~'17)
② 한·미/EU 중복: 1.4조원('15~'17)
③ 한·EU 대책: 2.6조원('15~'20)
+ 계속사업 3.8조원('21~'24)
+ ⓐ 증액 1.3조원
기존 FTA대책: 총 9.0조원 + ⓑ 증액 0.1조원
계속사업: 0.4조원 ('15~'24) + ⓒ 신규 0.7조원
한·영연방 FTA대책 투융자 규모('15~'24) 2.1조원 (ⓐ+ⓑ+ⓒ)

2020년까지 후계 축산인 5100가구 육성

1조3000억 창업자금 조성
사료안정화 방안 적극 모색
농장관리 대행도 확대 시행

축산농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농협이 후계 축산인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농협은 2020년까지 후계 축산인 5100호를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 중앙회 차원에서 축산 후계농 종합지원 센터 설치와 함께 2020년까지 1조3000억원 규모의 축산 후계 창업자금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문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교육지도와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축산 후계농 지원센터는 예비 축산인, 2세 축산인, 전문 축산인으로 각각 구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축협에서도 후계농가 창업지원과 축사은행사업, 축사단지사업, 한우 우량번식기반을 내용으로 한 후계 축산인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농협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조3000억원의 축산물 생산액과 2500억원 규모의 농가소득 창출뿐 아니라 5만4000명의 고용효과와 2조9000억원 가량의 관련 산업 전후방 연관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또 양축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앞서 농협은 사료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2014년 5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 축종에 대해 선도적으로 사료가격을 인하해 총 260억원 규모의 사료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사료원료 수급을 개선하고자 인도네시아 람풍주에 위치한 연간 6만톤을 가공할 수 있는 타피오카 공장도 인수했다.

타피오카는 카사바의 뿌리에서 채취한 식용 전분으로 주로 동남아시아와 남미에서 식용·공업용으로 이용된다. 우리나라는 타피오카를 동물용 사료원료로 연간 20만톤을 수입하고 있다. 농협은 이번 인수로 전체 수입량의 3분의 1수준인 6만톤의 타피오카를 안정적으로 국내로 들여와 원료수급 불안과 가격변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한우농가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36개 지역축협을 선정해 진행한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도우미 지원사업은 한우농가가 애경사나 질병·사고·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장을 관리할 수 없을 때 일정범위 내에서 지역축협이 농가의 농장관리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협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일본 등은 정부 차원에서 낙농·육우·양돈·양계부문에 대해 도우미 지원사업과 동일한 헬퍼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들 국가는 정부와 지자체가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을 적극 지원, 제도 활성화를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해 2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을 지원키로 했으며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올해에는 더욱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중·소규모 한우농가의 폐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지원사업은 한우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2020년까지 후계 축산인 5100호 육성 (단위: 호)

한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4200	350	300	100	100	50

중점 추진계획



농협 중앙회
– 축산 후계농 종합지원 센터 설치 운영
– 축산 후계 창업기금 조성

축협
– 후계농가 창업지원
– 축사은행사업(임대)
– 축산단지사업
– 한우 우량번식기반

대책 추진 효과
축산 농가 증가 …… 4200
축산물 생산액 …… 1조3000억원
농가소득 …… 2500억원
전후방 연관효과 …… 2조9000억원(5만4000명고용효과)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aT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민행복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달립니다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가꾸어온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사례 ③

초음파식 가스유량계 / WISE Control INC.

WISE Control INC.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초음파식 가스유량계는 LNG 생산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산기자재 의존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현대해상, 현대제철 회사채 또 산다

이달말 발행하는 3000억 중 일부… 3년만에 재투자
운용자산 수익 '뚝'…국고채보다 높아 회사채 눈돌려

현대해상이 현대제철의 회사채에 투자한다. 지난 2012년 200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한 지 약 3년여만이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현대제철이 이달 말 발행 예정인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일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투자 규모는 현대제철 회사채의 수요예측 이후 금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이달말 3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수요 예측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2000억원을 더 발행해 총 5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이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이유는 오는 5월까지 49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번 회사채는 이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이 현대제철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2년 1월 현대제철이 4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 2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현대해상이 현대제철 회사채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운용자산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현재 현대해상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3.52%로 전체 손보사 운용자산 수익률인 4.0%보다 0.48%포인트 낮은 상태다. 최근 저축성보험 평균 공시이율이 3.81% 인것임을 감안하면 역마진 상태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졌다. 때문에 국고채보다 수익률이 좀 더 좋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회사채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회사채 발행에 대한 수요예측을 실시하게 되면 금리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저금리 기조가 장기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입 후 처분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투자규모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보험사·정비업체 불만차단 새 수리비견적시스템 구축

보험개발원 내년 하반기 오픈
차종별 항목 450개로 세분화

보험개발원이 새로운 자동차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이하 AOS) 구축작업에 착수했다. 새로운 작업항목을 탑재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시스템으로 내년 하반기 오픈할 예정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새로운 AOS 구축을 위해 지난 2일 TF를 구성하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이 TF에는 보험개발원 직원 4명, 9~10개의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는 국토부에 AOS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기술연구소는 정비공장들의 불만 및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차종별 250개 항목을 400~450개 이상으로 세분화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새로 도입되는 AOS는 보안성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전에는 보안이 취약한 구조였다. 더불어 보상 프로세스가 개선돼 보험사와 정비공장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내다보고 있다.

보험개발원 AOS TF 관계자는 "AOS 시스템은 2003년 최초 개발돼 전산 환경도 많이 바뀌고 시점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새로운 시스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며"지난해 1년 동안 시스템 관련 연구를 했고, 올해 세부적인 보완을 거쳐 시스템 내용을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AOS는 지난 2003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수리비 전산견적시스템으로 전국 자동차정비업체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손보사에 보험정비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앞서 정비업체들이 도입을 주장하는 한길 프로그램은 AOS보다 월 유지비가 2배 비싸며, 작업시간 공임의 경우 2005년 이후 출고된 차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임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구귀 기자 kkk@

산은, 中핑안리스에 1억달러 외화대출

국내 첫 구조화금융 주선

산업은행이 국내에 발행한 구조화 증권(ABCP)을 토대로 중국 핑안그룹 산하 핑안리스에 약 1800억원(1억달러)을 대출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저금리 추세와 풍부한 원화유동성을 활용해 순수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최초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구조화금융 주선이다.

19일 산은에 따르면 이 은행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원화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한 후 달러-원 스와프를 통해 1억달러를 조달했으며, 이를 평안리스에 대출했다. 이 과정에서 산은은 중국의 수출입은행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했고, 지급보증(스탠다비 L/C)을 받아 위험을 최소화했다.

평안리스는 중국 2위의 보험사인 평안보험 등 24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평안그룹의 자회사로 중국내 10위의 리스사다.

산은은 한중 위안화 채권 직거래시장 개설 등 양국간 금융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시한데다, 국내 자본시장을 활용해 순수 비거주자에 대한 새로운 영업모델을 발굴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하나' 되어 '행복한 금융'

하나금융그룹이 새 경영 슬로건을 '행복한 금융'으로 정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큰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사진 앞줄 가운데)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카드 등 그룹 임직원 1만여명은 지난 17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위대한 상상(上上), 출발! 2015' 행사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2014년이 소통과 협업의 해였다면 2015년은 혁신의 해"라며 "통합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혁신 중의 하나인 만큼 2015년에는 통합을 넘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큰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자는 하나금융의 미션이 곧 행복한 금융"이라며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이 행복하며 사회가 행복한 금융, 모두를 위한 행복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한화생명, 올해 亞서 입지 굳힌다

'3대 중장기 경영전략' 발표
中·베트남 이어 홍콩 등 진출

한화생명은 지난 18일 2015년 경영전략 회의에서 2015년을 '새로운 한화생명! 세계 초일류 보험사 도약 원년!'으로 선포하며 3대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한화생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역량 구축, 지속 성장을 위한 비용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 등을 3대 중장기 전략으로 설정했다. 2015년 자산 100조원 시대를 맞아 지난 2년간 전 부문에 걸쳐 추진중인 전사적 혁신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화생명은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 진출 7년차를 맞이한 베트남 법인의 전국 영업망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중국 법인은 저장성을 기반으로 상하이, 장쑤성 등으로 신규시장 진출을 통해 전국 영업망 구축에 나서고, 인도네시아 법인은 방카슈랑스 등의 판매채널 다변화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한화생명은 향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아시아국가 위주로 2단계 해외추가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김연배 부회장은 "새로운 한화생명은 고객이 평생 함께 하고 싶은 회사를 의미한다"며"이를 위해 한화생명은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티볼리 살땐 아주캐피탈 이용하세요"

장기저리 할부 최대 72개월·유예할부는 60개월



아주캐피탈이 쌍용차 티볼리를 구입하는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저리할부와 유예할부 상품을 출시했다.

장기 저리할부는 최대 72개월까지 대출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장기 유예할부는 최대 60개월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다가 만기 시에 유예한 차량금액(차량가격의 30%)을 완납하면 되는 형태다. 두 상품은 모두 5.9%의 금리로 제공된다.

쌍용 체어맨W에 대해서는 유예금융리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매자는 차량가 5631만원을 36개월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 30%(1689만원)을 선수금으로 내고 월 리스료는 39만9000원씩만 부담하면 된다.

이 밖에 한국GM 스파크·크루즈·캡티바 대상으로 무이자할부를 비롯해 차종별로 1.0~3.9% 초저리할부, 최대 5년까지 이용가능한 저리 장기할부, 차 값의 125%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도 운영 중이다.

컴패스·그랜드 체로키·피아트의 크라이슬러 차량과 포드 포커스·링컨 MKZ에 대해 무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2015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 · 생산현장에 IC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지원을 위해 『2015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9일

중소기업청장

Ⅰ 경영혁신플랫폼구축사업

1. 사업 개요

○ 클라우드 컴퓨팅기반 저비용 · 고효율의 공동활용시스템(플랫폼) 및 솔루션을 구축 · 지원으로 중소기업은 전담인력, 유지비용, 기능개선 등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기본형솔루션)** 금융, 매입 · 매출관리 등 경영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일반 업무 기능
- **(특화형솔루션)** 업종별 공동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개발된 업무 기능
  * 특화형솔루션 : '13년 7개 업종, '14년 14개 업종

2. 지원 내용

○ **(기본형솔루션)** 금융관리, 수납지급관리, 매입 · 매출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관리, 영업관리, 원산지증명 등의 업무 지원

※ 사용방법 : 경영혁신플랫폼 웹사이트 접속(www.smplatform.go.kr) → 회원가입 → 기본형솔루션 활용

○ **(특화형솔루션)** 업종별 협단체 소속 회원사(중소기업)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개 업종 내외
- 지원금액 : 정부지원 최대 2억원(개발비용 초과시 신청 협 · 단체 부담)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3.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 · 사업자단체
  * 개인 또는 기업 단독 신청은 불가

○ 제출서류 : 경영혁신플랫폼 특화형솔루션 개발과제 신청서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진흥부에 이메일(bluemoon@kbiz.or.kr) 접수
- 문의 : (신청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진흥부(02-2124-3233)
  (사업관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컨텍센터(1644-1736)

4. 지원 규모 : 14억원

Ⅱ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1. 사업 개요

○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관리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

○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산지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2. 지원 내용

○ 제조현장 디지털화를 위한 생산설비정보시스템(POP, MES, CAPP, PDM, RFID/USN) 개발 · 구축 지원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 및 활용교육 등 지원

3. 지원 조건

○ **(신규과제)** 동 사업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 **(개선과제)**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1회에 한함)
-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수출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계모듈 구축 및 지원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조건
서버 일체형	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	최대 700만원 (50% 이내)
정보시스템 연계형	ERP 등 정보시스템과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모듈 구축 지원**	최대 1,000만원 (50% 이내)

※ 신규/개선과제와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중복 신청 가능

4.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신규/개선과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 · 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5. 지원 규모(예산) : 80억원, 150개 기업 내외

Ⅲ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 후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기술유출 사전 예방

2. 지원 내용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지원

3.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4.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유출 피해 기업 우대(기술유출 피해 여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상담보고서, 경찰청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증빙)

5. 지원 규모(예산) : 14.9억원, 37개 기업 내외

Ⅳ 신청 및 문의처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5. 1. 19(월) 09:00 ~ 2. 16(월) 18:00**

○ **제출서류 : (중소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원기관) 풀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양식은 http://it.smb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http://it.smba.go.kr)
※ 경영혁신플랫폼구축사업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bluemoon@kbiz.or.kr) 접수

2.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컨텍센터 1644-1736 경영혁신플랫폼 : 042-388-0317, 02-2124-3233 생산현장디지털화 : 042-388-0314~16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042-388-0318

※ **자세한 공고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홈페이지와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it.smb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Ⅴ 권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2015. 1. 27(화)	14:00	**(서울)** 키콕스벤처센터 대회의실
2015. 1. 29(목)	14:00	**(경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2015. 1. 30(금)	14:00	**(대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2015. 2. 3(화)	14:00	**(부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2015. 2. 5(목)	14:00	**(대구)**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2015. 2. 6(금)	14:00	**(광주)** KTX 광주역 3층 무등산실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신세계, 사상최대 3조3500억 투자… 1만4500명 채용

"쇼핑몰·백화점 출점으로 내수활성화"

임원 워크숍서 투자계획 확정
하남·삼송 등 복합쇼핑몰 신축
이마트 3~5개점 문 열 계획
SSG닷컴 모바일·온라인 강화

신세계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인 3조3500억원을 투자하며 1만4500명을 채용한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2015년 그룹 임원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신세계그룹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투자한 지난 2013년(2조3000억원)과 비교할 때 1조500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회사 측은 올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액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비전 2023' 실현에 초점을 맞춰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비전 2023은 2023년까지 매출 88조원, 투자 31조4000억원, 고용 17만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2조~3조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매년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15년 신세계그룹 주요 투자 및 채용 계획

	신축	증축 및 리뉴얼
주요 내용	· 하남 · 고양 삼송 · 인천 청라 등 복합쇼핑몰 ·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 부산 센텀시티 B부지 개발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신축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증축 · 전국 3~5개의 이마트 신규점 진출 · 이마트 · 백화점 매장 리뉴얼 · 증축 ·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리뉴얼 2배 확장 · 모바일 · 온라인몰 강화 등
투자 금액	3조3500억원(지난해 2조2400억원)	
채용 규모	1만4500여명(지난해 1만3500여명)	

※출처: 신세계그룹

올해 주요 투자처는 경기 하남, 고양 삼송, 인천 청라 등에 예정된 교외형 복합쇼핑몰과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증축, 센텀시티 B부지 추가 개발, 김해점 신축 등이다. 이마트는 올해 신규점 3~5개를 열 예정이며, 2020년까지 모두 6개의 온라인 물류센터를 구축해 국내 진출이 임박한 거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맞설 방침이다. 또'SSG닷컴' 등 모바일 서비스 강화 및 온라인몰 등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500호점을 돌파한 편의점 위드미 사업은 올해 신규 경영주들의 수익 확대 등 경영 정상화와 내실 다지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올해 신규 인력 채용은 지난해(1만3500여명) 보다 1000여명(8%) 늘린 1만4500여명 가량을 선발해 일자리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전일제 일자리와 임금이나 복리 후생에 차별이 없다.

신세계그룹은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투자를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해외·지분투자,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

전경련, 정부에 의견서 내
"국내 경제 기여땐 포함을"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기업의 해외 투자와 지분투자도 투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의견서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 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투자는 해외 투자 억제가 아닌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외투자 인정을 요청했다. 특히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는 사업할 수 없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 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해외 투자는 국내 가계소득 증대 등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만큼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2013년 말 기준 10대 기업이 총 매출의 66%를 해외에서 올렸고 납부한 법인세의 82%를 국내에 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 수출도 0.1~0.3% 늘어나는 것을 들어 해외투자도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지분투자도 장려 대상에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분투자가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피인수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인수기업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봤다. 특히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사업 내용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환류세제상 임금 증가액에 4대 사회보험료 증가분과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을 포함하고 적용대상에 특수목적법인(SPC),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스포츠구단, 합작회사 등은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토지 매입 후 1~2년 내 착공해야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업무용 부동산 투자의 판정기준을 확대하고 과세기준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15건의 개선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포스코, 이번주 임원 인사
일부 계열사 사장 교체할듯

대규모·문책성 인사 전망
포스코건설 새 대표 관측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이 이번주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한다. 이번 인사에서 권 회장은 일부 계열사 사장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정기 임원인사는 이르면 20일 실시된다. 당초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실시하려 했던 정기 임원인사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인사가 늦어지면서 규모가 커질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규모 승진 인사로 점쳐졌지만 지금은 문책성 교체 인사가 포함될 것이란 게 내부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인사가 가장 어렵다. 지금 신경써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이번 인사는 권 회장이 취임 이후 성과를 지켜본 뒤 실시하는 첫 인사다. 권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3월 상장사와 비상장사 수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이후 1년여만에 실시되는 만큼 권 회장의 경영방침이 인사에 적극 반영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계열사 수장 교체는 비상장사와 상장사 모두 거론되고 있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포스코플랜텍은 대표이사 교체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장사인 포스코건설 역시 상장을 앞두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새 대표 체제로 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포스코 계열사 대표이사의 경우 상장사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비상장사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실시되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사실상 새로운 인적 구성 체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권 회장이 매년 3월 실시했던 포스코의 정기 인사를 앞당기는 것도 빠른 체질 개선을 위해서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승진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 포스코의 구조재편을 담당하는 가치경영실에서 승진 인사가 나올 것이란 게 포스코 내부의 분위기다. 가치경영실은 포스코특수강의 세아베스틸 매각 등 지난해 성공적인 구조재편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기 임원인사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짧게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이재용·이부진·이서현 한자리에

오늘 신임 임원 만찬 행사
이 부회장 메시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삼성그룹 신임 임원 만찬행사에 참석해 이들을 격려한다.

재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겸 제일모직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 등 이 부회장의 두 여동생도 함께한다. 과거 이부진 사장이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이서현 사장까지 3남매가 모두 신임 임원 만찬 행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승진한 253명의 삼성 신임 임원은 지난 15일부터 4박 5일 동안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에서 합숙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창업 정신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영 이념을 되새기고, 삼성 임원으로서 갖춰야할 자세 등 소양교육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2002년부터 합숙 교육 마지막날 열리는 신임 임원 부부동반 만찬 행사에 참석해 이들을 축하했다. 재계는 지난해 삼성그룹이 전반적인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 부회장이 이번 만찬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만찬 건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바뀌어야 하는 시기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상징과도 같은 '위기론'을 꺼내들은 바 있다.

한편, 최근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새해 경영계획을 보고 받으며 한계 돌파를 적극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진 기자 js62@

말많고 탈많은 중고폰 선보상
반납 기준 모호… 피해자 속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적한 부당한 우회 보조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 소지, 불명확한 휴대폰 반납 기준 외에도 이동통신사의 무작위 가입자 확보가 고객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이통사의 고객 A씨는 대리점에서 "무조건 싸다"는 말 외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얼떨결에 번호이동을 했다. A씨는 가입한 서비스가 중고폰 선보상제가 포함됐는지를 고객센터에 재차 확인했으나 "이 서비스에는 가입이 안됐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서비스 가입 해지를 요청했지만,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객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방통위는 지난 14일 이동 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삼성 브랜드 이미지 美서 5위

미국에서의 삼성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국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의 지난해 미국 브랜드 인덱스 순위는 5위로 집계됐다. 2013년 10위권 밖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에서의 삼성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진 것이다.

삼성은 조사를 실시한 15개 국가 가운데 11개 국가에서 브랜드인덱스 순위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명품 오디오사 공동개발 LG '블루투스 헤드셋'



LG전자가 세계적인 오디오 명품 브랜드 하만카돈과 공동 개발한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플러스(HBS-900)'의 핑크골드 색상을 1월 말 국내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모델이 'LG 톤플러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日소프트뱅크, 中 택시 앱에 6억 달러 베팅
국내 택시 공유앱도 잭팟 터질까?

일본 소프트뱅크가 태국, 인도, 중국 등의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 잇따라 거액의 투자를 단행,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국내 택시 앱 업체에도 잭팟이 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최근 중국 최대 택시 공유앱 서비스인 콰이디다체에 6억 달러(약 6500억원)를 투자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우버의 경쟁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는 그랩택시에 2억5000만 달러, 인도 택시 공유 앱에 2억1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택시 앱 시장에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텐센트는 지난해 초 중국 콜택시 예약 앱 디디다처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디디다처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총 8억1800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과 동남아 택시 앱들이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국내 택시 앱 업체들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택시 앱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다음카카오, SK플래닛, 쏘카택시 등 3~4곳. 이들 업체는 모두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이미 상장돼 있지만, 택시 앱인 카카오택시에 외국 투자를 유치할 경우 종합 생활포털로의 지위를 확실히 굳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13일에는 기사용 안드로이드 앱을 우선 출시했으며, 승객용 앱은 1분기 내로 선보일 계획이다.

'T맵 택시'라는 이름으로 택시 앱을 준비하고 있는 SK플래닛은 아직 상장돼 있지 않아 외국 투자 유치에는 비교적 자유롭다. 다만 SK그룹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외국 자본의 영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쏘카는 올 상반기 택시 호출 서비스 '쏘카 택시'를 론칭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고객중심 서비스' 재차 강조한 이상철 부회장

〈LG유플러스〉

LGU+ '리더 혁신 캠프' 열어



이상철〈사진〉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뉴 라이프 크리에이터'를 또 한번 강조했다. 이는 고객의 관점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으로, 이 부회장이 지난해 말 회사의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던 개념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2015 리더 혁신 캠프'를 열고 회사의 올해 회사운영 방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의제를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철 부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 5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설에 나선 이 부회장은 "가치 창출의 중심이 공급자가 아닌 고객으로 전환되는 시대가 왔다"며 이 같은 서비스로 △안전 향상 △정보 공유 △시간관리 △감성 케어 △코스트 절감 등을 제시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한 서비스간 융·복합과 개인화, 그리고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모든 접근을 고객 가치에서 출발하고 필요한 외부기술은 활발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뉴 라이프 크리에이터는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가는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성제 기자 psj@

주목! 이곳 현대엔지니어링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마곡 유일 민간' 프리미엄…문턱 닳았다

1194가구 분양 견본주택 오픈
실수요자 몰려 입장에만 1시간
전용 59·84㎡ 중소형으로 구성
'ㄷ'자 주방 등 공간활용 극대화



올해 수도권 내 대형건설사 첫 분양인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견본주택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사진은 방문객들이 견본주택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제공 현대엔지니어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시장의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6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가운데 휴일까지 3만8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개관 첫날은 겨울비와 진눈깨비가 흩뿌리는 날씨 속에서도 개관 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인파는 계속 몰려들어 주차에만 1시간 정도 소요됐고 입장에도 1시간가량이나 걸렸다. 내부에 들어서서도 유닛 하나를 보기 위해 30분~1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17일에는 견본주택에 입장하려는 방문객이 건물 주변으로 400m 이상 줄을 서 입장까지 2시간 이상 대기했고, 견본주택 안에는 주택형별 평면을 구경하고 상품 설명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는 지하 2층~지상 16층 22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393가구, 84㎡ 801가구 등 총 1194가구로 건설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500만원 초반대로 59㎡의 경우 3억5000만~4억원, 84㎡는 4억9000만~5억3000만원 사이다.

아파트의 상품성 역시 최근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사용한 이후로 크게 개선됐다. 이 단지의 경우 전용 59㎡ 타입 일부 가구에 3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주방도 돋보인다. 주부의 작업 동선을 줄이기 위해 'ㄷ'자형 주방 설계를 적용하고 음식물 탈수기, 걸레받이 일체형 수납장 등이 설치돼 주방 위생은 물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전용 84㎡타입 일부 가구에도 판상형 4Bay 구조를 적용했다. 발코니 확장 시 자녀방에 침실별로 빌트인 붙박이장을 설치해 풍부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아쉬운 점은 주변 인프라다. 시공사 측은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가 들어서는 곳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2017년 개통 계획)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멀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인근에 위치한다. 청약은 20일 특별공급, 21일 1, 2순위, 22일 3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017년 상반기 예정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SK건설, 사우디서 무재해 8000만 인시 돌파

와싯 가스플랜트 프로젝트서
3월 준공 1억 인시 기록 무난


SK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발주한 와싯(Wasit) 가스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무재해 8000만 인시를 돌파했다. 사진은 안전수칙을 숙지한 근로자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캔디 데이' 행사 모습. 사진제공 SK건설

SK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발주한 와싯(Wasit) 가스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무재해 8000만 인시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록은 근로자 1000명이 매일 10시간씩 21년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달성할 수 있는 대기록으로,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장에서 세운 역대 무재해 신기록에 해당된다고 SK건설 측은 밝혔다.

앞서 SK건설이 2008년 쿠웨이크 원유 집하시설 현대화 공사에서 무재해 4100만 인시, 2014년 6월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정유공장(RRE) 프로젝트에서 무재해 6500만 인시를 달성한 데 이어 또다시 한국 건설업계의 무재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2015년 3월 와싯 프로젝트 준공 시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무재해 1억 인시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건설은 톡톡 튀는 감성 안전 활동과 체계적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안전수칙을 숙지한 근로자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캔디 데이'(Candy day), 안전담당자가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스탠드다운 미팅'(Stand-down meet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와싯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강남재건축發 전셋값 상승세
경기·인천 등지까지 옮겨붙어

서울에 집중된 전셋값 상승세가 경기도와 인천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조사기준(12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3%로 지난주(0.10%)에 비해 높아졌다.

서울이 0.08%로 지난주(0.09%)보다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경기도 0.17%, 인천 0.10%로 지난주에 비해 각각 상승폭이 0.05%포인트씩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평균도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 0.10%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는 연초부터 재건축 이주, 겨울방학 학군 수요 등이 움직이며 서울 전셋값이 오르자 경기·인천 등지로 상승세가 번져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6%로 1월 둘째 주와 같다. 서울이 0.02%로 지난주(0.05%)보다 오름폭이 둔화됐고 경기도는 0.08%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힐스테이트' 올해 1만7617가구 나온다

현대건설, 작년 공급량 2배 육박

현대건설은 올해 1만7617가구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한 9215가구에 비해 분양물량을 2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에서 1만3391가구를, 그 외 지방에서 4226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올해 첫 사업은 3월 내놓는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지구 4블록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2차'가 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101㎡ 8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4월에는 왕십리뉴타운 3구역에서 2529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분은 전용 40~115㎡ 1171가구다.

아울러 경기도 광주 태전5·6지구에서도 30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4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3151가구로 분당 신도시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경남기업 총 636억원 규모 공공·민간 마수걸이 수주

경남기업은 최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올해 첫 공사 수주를 했다고 밝혔다. 총수주 금액만 636여억원에 달한다.

우선 지난 12일에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인천생산기지 2단계 7차 3지구 설비확충 건설공사의 최종 낙찰자 통보서를 접수했다. 낙찰금액은 230여억원(낙찰률 81%)으로 경남기업이 주간사이며 경화건설과 함께 각각 7:3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6번지 인천생산기지Ⅲ지구에 위치하며 2016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경남기업은 명진건설산업주식회사와 공주시 웅진동 223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도급금액 475여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공주시 웅진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8개동, 423가구를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24개월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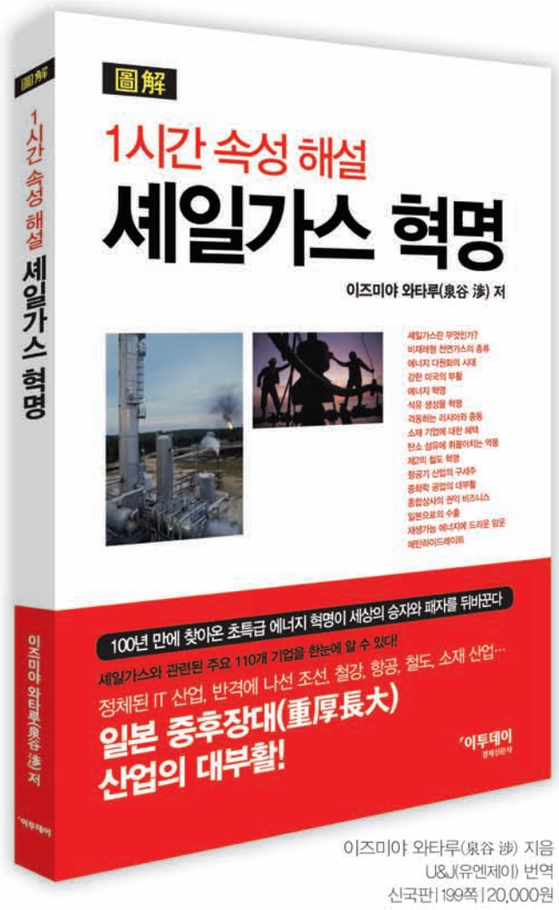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1/19 (월)	발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현대그린(민중국)	031)841-8600
	계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문수산신동아파밀리에 (~1/21)	052)224-4233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코아루퍼스트 (~1/21)	043)910-0001
1/20 (화)	계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대전봉명동레자미멀티홈 (~1/22)	042)825-6000
		경북	포항시	학산동	포항영일대우방아이유쉘 (~1/22)	054)241-7000
1/21 (수)	접수	서울	강서구	마곡동	힐스테이트마스터 1,2순위	1599-9355
		충북	청주시	우암동	삼일브리제하임 1순위	043)269-2000
	발표	경기	화성시	봉담읍	화성봉담2차우방아이유쉘	031)233-9777
		경남	창원시	북면	창원감계푸르지오	1800-0208
		경북	구미시	비산동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	054)458-6800
1/22 (목)	접수	서울	강서구	마곡동	힐스테이트마스터 3순위	1599-9355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호반베르디움3차(A41) 1,2순위	1800-8366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호반베르디움2차(RC1) 1,2순위	1566-3337
		충북	청주시	우암동	삼일브리제하임 3순위	043)269-2000
	발표	경북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이전신도시2차우방아이유쉘(B6)	1899-8860
		충남	천안시	백석동	천안백석3차PARK	041)562-1111
1/23 (금)	오픈	경남	창원시	가음동	창원가음꿈에그린	1666-7490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도솔노블시티동문굿모닝힐	041)555-2999
		충북	흥덕구	강서동	청주블루지움B910 ♣	043)263-0001
	접수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호반베르디움3차(A41) 3순위	1800-8366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호반베르디움2차(RC1) 3순위	1566-3337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부동산114

1월 셋째 주에는 4223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 택지지구 및 신도시에서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들의 청약 소식이 들려온다. 마곡지구 '힐스테이트마스터' 1194가구, 동탄2신도시 '동탄호반베르디움3차' 1695가구,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호반베르디움2차' 1153가구 등 4042가구가 공급되며 지방에서는 청주 '삼일브리제하임' 181가구가 나온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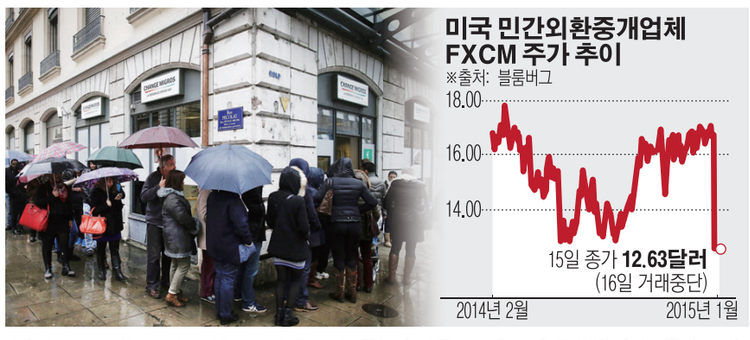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스위스發 '쇼크'… 글로벌 금융 파산 '공포'

지난 일주일간 유로 대비 스위스프랑 가치 21% 급등
FXCM 3억달러 수혈 등 외환중개기관 막대한 손실
일각선 "글로벌 환율전쟁 심화 전주곡" 분석도 나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시민들이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 은행 앞에 줄을 서 있다. 스위스프랑 가치는 유로에 대해 지난주 20% 이상 치솟았다. 블룸버그

스위스중앙은행(SNB)의 전격적인 최저환율제 폐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는 스위스 통화 당국에 대한 불신이 퍼졌고, 주요 외환중개기관은 파산 공포에 떨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위스의 돌발 행동이 글로벌 환율전쟁의 심화를 알리는 전주곡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SNB의 결정으로 글로벌 환율전쟁이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마켓워치는 SNB가 유로화에 대한 최저환율제를 폐지한 지난 15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달러 가치가 스위스프랑에 대해 10% 이상 급락했다면서,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돌발 변수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외환시장은 물론 주식시장 역시 앞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마켓워치는 덧붙였다.

스위스프랑은 유로에 대해 지난 주말 99.41상팀에 거래됐다. 일주일간 유로 대비 가치 상승폭은 21%에 달한다. 스위스프랑 가치는 주요 150개 통화에 대해 두 자릿수 이상 절상된 상태다.

스위스프랑 가치의 급등으로 펀드 청산과 민간 외환중개기관의 파산이 속출하면서 시장에는 스위스프랑(franc)과 종말을 뜻하는 아마게돈(armageddon)을 합친 '프랑코게돈(francogeddon)'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90년대 말 신흥시장의 외환위기 사태에도 건재했던 에버레스트캐피털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글로벌 펀드의 운용을 중단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미국 최대 민간 외환중개기관 FXCM은 스위스프랑의 급격한 절상으로 고객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회사 경영에 위협을 받자 3억 달러의 자금을 수혈했다. SNB의 최저환율제 포기로 FXCM의 상당수 고객이 강제 청산 위기에 놓였으며, 당장 계좌에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만 2억2500만 달러 정도라고 통신은 전했다.

FXCM의 주가는 SNB가 유로에 대한 최저환율제를 포기한 1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5% 급락한 뒤 16일에는 추가로 65.80% 폭락해 결국 거래가 중단됐다.

뉴질랜드의 글로벌브로커스는 스위스프랑 가치 급등으로 파산보호를 검토 중이며, 영국 IG그룹홀딩스가 4550만 달러, 스위스의 스위스쿼트그룹홀딩스는 2840만 달러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체방크를 비롯해 UBS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외환거래기관 역시 스위스프랑 가치 급등에 따른 주문을 처리하느라 곤욕을 치렀으며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닉 파슨스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뱅크 리서치 헤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며 "SNB의 180도 입장 선회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와 함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전격적인 최저환율제 포기가 결국 스위스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UBS는 SNB가 3년 동안 유지하던 최저환율제를 폐지하면서 스위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1.8%에 비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UBS는 스위스 수출업계가 환율 급락에 따라 50억 스위스프랑(약 6조14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중앙銀 자국국채 매입" 유럽판 양적완화 도입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 중앙은행이 각기 자국의 국채를 국가부채 총액의 20~25% 선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적완화(QE) 방안을 제시했다. AP/뉴시스

드라기 ECB 총재 "獨 고려… 국가부채 20~25%선 권고"

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과 일본 등이 실시하는 양적완화(QE)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주체는 ECB가 아니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각국 중앙은행이 될 전망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이 각자 국가부채 총액 20~25% 선에서 자국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QE 방안을 제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다.

이날 발매된 슈피겔 최신호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지난 14일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을 만나 이런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그리스 국채는 살 만한 등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국채 매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ECB가 본격적인 미국식 양적완화를 시행한다면 직접 각국 국채를 사들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입 규모는 최소 2500억 유로에서 최대 1조 유로(약 1253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슈피겔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ECB는 시장의 관측과는 달리 ECB 자체가 아니라 회원국 중앙은행을 QE 주체로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다른 나라의 빚을 떠안는 것에 반발하는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의 반발을 고려해 드라기 총재가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고 풀이했다.

독일정부가 이런 드라기 총재의 이런 구상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ECB 통화정책위원인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장은 "만약 각국 중앙은행이 타국이 아닌 자국 국채만을 매입 대상으로 삼는다면 원치 않는 재정리스크 재분배 위험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ECB가 직접 모든 국가의 국채를 사면 국채 등급이 불량한 국가의 리스크가 우량국으로 넘어가지만 각국이 자국 국채만 산다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견해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독일 경제연구소 DIW의 마르셀 프라체 소장은 "이런 방안은 '통화공동체의 종말'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위험을 덜 부담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의 노력'이 약해진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한편 ECB는 오는 22일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국채 매입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QE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오바마의 '중산층 살리기' 해법은 부자 증세

자본소득 최고세율 23.8%→28% 추진… 10년간 3200억달러 세수 추가 확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에 나설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집권 2기 후반기를 맞아 전통적 지지층과 중산층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국정연설에는 부유층과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을 늘려, 감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중산층을 지원하는 안이 담길 전망이다.

여기에는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15%였던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23.8%로 인상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도 자본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약 345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늘어난 세수로는 중산층에 대한 추가 세금공제 수단을 마련하고, 고등교육과 보육 관련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정국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8년 만에 여소야대 시대로 접어들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장비 제조업계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을 폐지하는 등 기업에 대한 과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국가(IS) 격퇴와 이란 핵협상,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해서는 경제분야 핵심과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국정연설의 주요 이슈로 예상된다.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의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샤오미 "스마트홈 진출… 삼성과 정면승부"

'스마트홈 스위트' 공개



블룸버그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스마트폰을 넘어 스마트홈 시장에도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샤오미는 1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기그파크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에서 가정 보안 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스위트'를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보안을 위한 동작인식센서와 문·창문 센서로 구성됐으며 오는 26일 소비자 테스트에 들어간다.

린빈 샤오미 사장은 "과거에는 센서가 아주 복잡하고 사이즈도 커서 시스템 설치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이 시스템은 못이나 선이 아예 필요없어서 (설치가) 간편하다. 구성요소가 매우 단순하다"고 말했다.

샤오미의 스위트는 무선으로 집안에 있는 다른 가전제품을 작동시키는 것은 물론 대문을 여닫을 수 있는 등 제어 기능도 포함됐다.

스마트홈을 포함한 사물인터넷 시장은 2020년까지 7조1000억 달러(약 765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조9000억 달러였다.

창업한 지 5년도 안 된 샤오미는 저가전략으로 최근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급부상했다. 이를 입증하듯 회사의 몸값은 IT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최고액인 450억 달러에 달한다.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가운데 스마트홈 시장에도 진출, 삼성전자와 정면 대결에 나섰다고 통신은 풀이했다. 이와 관련 샤오미는 지난해 10월 스마트 공기청정기와 스마트 전구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女風' 다보스포럼

샌드버그 페이스북 COO 등 참가
여성임원 17%… 전년보다 2%P ↑

이달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동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15 다보스포럼'에 '여풍(女風)'이 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세계경제포럼(WEF, 이하 '다보스포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각 국 기업인 중 여성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추산된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 15% 보다 올라간 수치다.

이들 여성임원에는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 야후의 마리사 메이어 최고경영자(CEO), 옥스팜의 위니 바니아 전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성 참가자들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세션도 마련됐지만 아직도 여성임원들의 입지가 좁다고 CNBC는 꼬집었다. EY의 베스 브룩-마시니악 부회장은 "'여성파워'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 변화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다보스포럼의 핫토픽은 경기회복세를 걷고 있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최근 보도했다. JP모건체이스 인터내셔널의 제이콥 프렌켈 회장은 "시계추가 이동하고 있다"며 "미국이 경제대국으로의 입지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美 바이든 부통령 자택에 총격



18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그린빌의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자택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차량으로 차단돼 있다. 전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으로부터 바이든 부통령 자택이 총격을 받았다. 당시 부통령 부부는 외출한 상태로 피해는 없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은 해당 차량이 부통령 자택에서 수백 m 떨어진 경호구역 밖 일반 도로를 지나며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린빌/AP연합뉴스

글로벌 리포트

작년 러 자본유출 163조원 넘어

지난해 러시아의 순자본유출이 기존 전망을 크게 웃도는 1515억 달러(약 163조2412억원)에 달했다고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은행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자본유출 610억 달러의 2.5배 가까운 수치이며 1336억 달러의 자본유출이 발생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약 180억 달러가 많은 규모다.

지난해 11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자본유출 규모를 1280억 달러로 내다봤었다. 예상보다 러시아의 자본유출이 늘어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금융혼란이 심화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中 '환승객 무비자 정책' 관광객 ↑

지난 2013년부터 중국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국제공항에 있는 지역에 도입한 외국인 환승객 72시간 무비자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수도 베이징은 지난해 연인원 4만명의 외국인 환승객이 이 제도를 이용해 베이징에 일시 체류하며 관광과 쇼핑을 즐긴 것으로 집계됐다.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은 정책 도입 후 지난해 국제선 환승객 수가 8% 증가했다.

외국인 환승객 72시간 무비자정책은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에 도착한 외국인이 72시간 이내에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과 해당 국가의 비자를 제시하면 중국 비자가 없어도 지정된 행정구역 안에 3일간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등 총 51개국 국민이다.

구글, 美 '소프트카드' 인수 추진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만든 모바일결제 컨소시엄 '소프트카드' 인수를 위해 협상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했다. 구글이 제시한 인수대금은 5000만 달러(약 538억7500만원)라고 WSJ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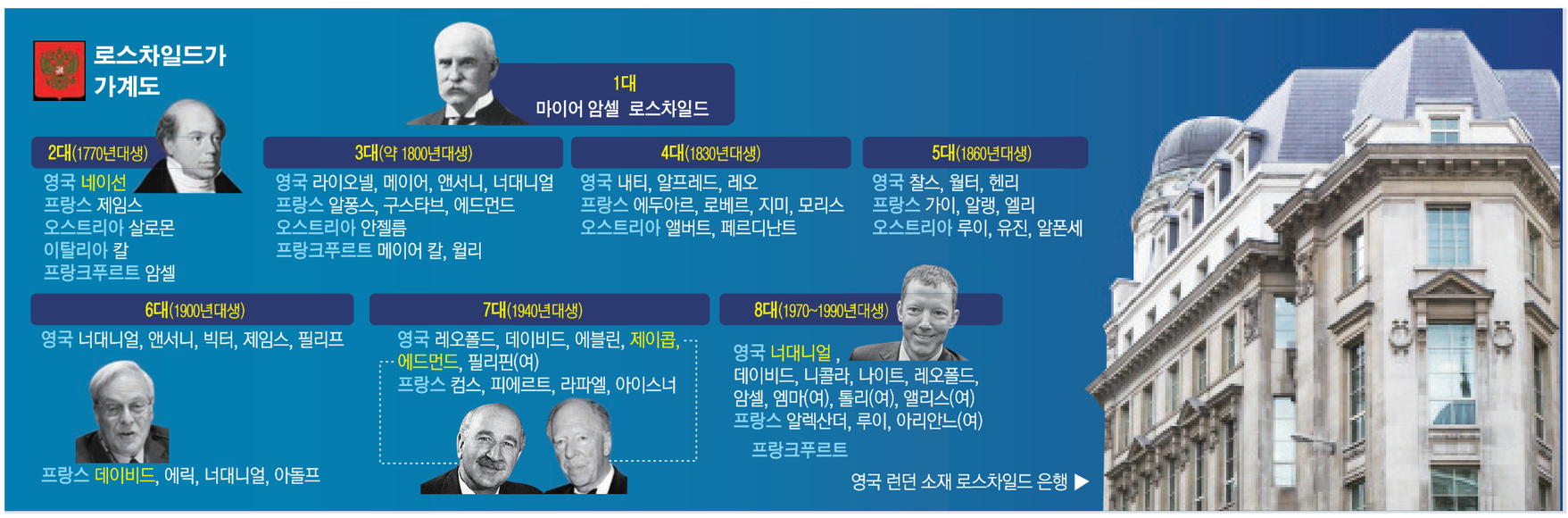
구글과 이통사들은 대립 관계를 보여왔다. 그러나 구글의 모바일 결제시스템 '월릿(지갑)'과 소프트카드 모두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했고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애플 페이(Apple Pay)'가 빠른 속도로 시장에 자리 잡을 조짐을 보이자 구글과 이동통신사들이 힘을 합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거주 국가에 충성’ 제1원칙… 품위를 갖춘 부와 권력

세계명문가에서 찾은 경영학

<글 싣는 순서>

1. 수백년 이어온 세계적 명문가들
2. 발렌베리家, 아낌없이 도와라
3. **로스차일드家, 나라가 최우선**
4. 록펠러家, 자선·문화사업으로 미국 명문가로
5. 한국의 명문가 대표 기업①
6. 한국의 명문가 대표 기업②
7. 아름다운 세습… 부 그리고 명예
8. 명문가에 남겨진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국·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 흩어져
19~20세기 세계금융 절대강자 군림
美 연준 창설·이스라엘 건국도 주도
대공황에 런던 은행들 감원 나설 때
로스차일드는 청소부도 해고 안해

“현재 유럽에는 여섯 개의 강국이 존재한다. 바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영국 벤자민 디즈레일리 총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렇게 묘사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화 바람을 타고 자산규모 수천억 달러의 은행들이 등장하기 전인 19세기와 20세기 초 세계 금융권을 지배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오랜 기간 존속되어 오며, 유대인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지지를 받아 왔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전 세계 각지로 분파된 그들은 자신의 거주 국가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로스차일드가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긴 인내와 통찰력,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로 경제사에서 오랜 기간 주목받아 왔다.

◇250년 금융 왕국의 탄생= 1744년 태어난 유대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창업자는 대금업과 금화 거래로 사업을 시작해 왕실 재정관리를 맡아 1800년 무렵에는 유럽 최대의 거부가 됐다. 로스차일드의 집은 문미에 눈에 띄는 붉은색 방패를 걸어 놓았다. 붉은색과 방패는 독일어로 각각 ‘로트(Rot)’와 ‘실트(Schild)’라 하는데, 훗날 두 단어가 결합돼 가문의 이름인 ‘로스차일드(Rothschild)’가 됐다.

로스차일드는 1798년 셋째 아들 네이선이 영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벌이며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다. 네이선은 1811년 런던에 NM로스차일드부자은행을 설립해 영국 금융계를 장악해 간다. 그러던 중 1815년 월터루에서 반프랑스 동맹과 나폴레옹의 결전이 벌어졌다. 네이선은 반프랑스 동맹이 이겼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뒤 정보를 바탕으로 공채 매입과 매각을 통해 큰 이익을 남겼다.

워털루 대투기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의 베어링스, 독일의 오펜하이머 등 유럽의 금융 가문을 차례로 꺾고 19세기 전 세계 금융업계의 절대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875년 영국 디즈레일리 정부에 400만 파운드를 융자해 영국이 수에즈 운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일등공신이 됐고, 나폴레옹으로부터 황금 가격 결정권을 획득해 2004년까지 국제 황금가 결정권을 행사했다. 또 미국 남북전쟁 시 민영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전쟁에 자금을 댄 데 이어 1910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법 제정회의를 주도하고 연방준비은행을 실질 관할하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주주로 참여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부와 권력, 품위를 갖춘 가문= 한 가문이 진정한 귀족으로 거듭나려면 적어도 3대는 거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문의 1대인 로스차일드는 가문의 창업자로서 평생을 고단하게 살았고, 귀족의 기백이나 품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2대들은 반쪽짜리 부와 반쪽자리 귀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

로스차일드가는 4대 때부터 선행을 베풀며 국민의 추앙을 받기 시작했다. 로스차일드가 4대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리오넬의 장남 내티. 그는 금융거래에 신중한 타입이었지만, 자선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썼다. 일이 고되고 수입과 사회적 지위도 낮은 영국의 하급 경찰들을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런던 경찰서에 적지 않은 액수의 수표를 보냈다. 또 당직으로 식사를 거른 런던 경찰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자신의 집 주방에 들어와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로스차일드가는 자신들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1929년 미국 월가의 주가 대폭락으로 런던 금융권 은행은 저마다 감원에 나섰다. 하지만 영국 로스차일드은행은 단 한 명의 청소부조차 해고하지 않았으며 직원의 월급을 한 푼도 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국 로스차일드 은행의 직원들은 회사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

이와 함께 로스차일드가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앞장섰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 거주하는 로스차일드가 후손 헨리는 현대 구급차의 발명가로 파리에 ‘헨리 앤 마틸다’ 병원을 설립했고, 전선에서 사용할 ‘소독과 위생’이라는 책자를 출판했다.

◇이스라엘을 세우다= 이스라엘 건국 문제를 다룰 때 로스차일드 가문을 빼놓고 얘기하긴 어렵다. 19세기 말 프랑스 로스차일드 은행은 알퐁스, 구스타브, 에드먼드 삼형제가 관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인 막내 에드먼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박해받는 러시아 유대인을 위해 팔레스타인의 황무지를 사들여 이곳에 유대인 이주를 돕기 시작했다. 그가 눈을 감는 날까지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위해 지원한 자금은 총 600만 파운드. 에드먼드는 갑부였지만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에 정착시키는 데에 매번 일정한 운영자금을 정해두고 한 푼도 더 주는 법이 없었다. 또한 이주민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기대심리를 키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농업전문가를 고용해 이주시키고, 이주민이 농업을 배워 자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건국에 공을 세운 로스차일드 가문을 잊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이의 이름을 로스차일드라 짓고 있으며, 이스라엘 곳곳에 ‘로스차일드 거리’를 찾아볼 수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다섯개 화살’의 교훈은

“하나로 뭉치면 꺾이지 않아”
‘가문의 결속’ 창업자 유언
8대에 걸쳐 충실하게 따라

“너희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세상 그 누구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창업자는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을 지키고 있던 장남 암셀과 차남 살로몬에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낱개의 화살과 화살 다발의 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섯 아들에게 단결을 강조했다.

화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다. 열두 명의 아들을 둔 남자가 있었다. 나이가 들어 임종을 맞이하게 된 아버지는 툭하면 싸움을 일삼는 아들들에게 ‘화살 하나를 부러뜨리는 건 쉽지만 열두 개의 화살 뭉치를 부러뜨리는 건 쉽지 않다’는 교훈을 가르쳤다는 내용이다.

로스차일드 역시 1812년 세상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엄격한 유언을 남겼다.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아귀다툼을 하지 않는다 △공동출자 경영자, 이사장 등 가족은행의 중요한 직책은 모두 로스차일드 가문의 직계 남성이 담당한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외척과 그 후손은 공동출자 경영자가 될 수 없다 △가족은행은 개인은행의 형식으로 운영하며 경영상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 △가문의 재산이 분산되지 않도록 가문의 직계 남성은 아버지의 자매 및 어머니의 형제자매 등 친척끼리 혼인해야 한다 등이다.

로스차일드가의 5형제 암셀, 살로몬, 네이선, 칼, 제임스는 아버지의 당부에 따라 대대로 가족간의 끈끈한 결속력을 유지해 나갔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가족 내부의 통혼을 통해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 규정은 초기에는 엄격히 지켜졌으나, 나중에 완화돼 다른 유대인 은행가 집안과의 통혼까지로 범위가 확대됐다. 가족의 엄격한 통제, 기계처럼 정확한 협조, 빠른 시장 정보 수집 능력, 냉철한 이성, 그리고 금전과 재산에 대한 깊은 통찰 등은 로스차일드가가 200년 동안 전 세계 금융 및 정치와 전쟁의 냉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활약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금융제국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로스차일드가의 형제들은 후손이 아버지의 유지를 명심할 수 있도록 다섯 개의 화살을 움켜쥔 손을 가문의 문장에 그려 넣었다. 로스차일드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200년 가까이 되었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전히 대대로 충실하게 그의 유지를 지켜나가고 있다. 로스차일드의 유지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8대를 이어가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한 토대가 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얼음물 대신 '사랑의 쌀지게' 들어요"

서윤성 나눔스토어 대표 '라이스버킷 챌린지' 기획
"소외이웃 삶의 무게 느끼고 나눔의 손길 전하자"
정치·연예계 등 사회 각계 참여 40일새 150명 넘어



서윤성 나눔스토어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용산 쪽방촌에 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나눔스토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쌀 기부 캠페인 '라이스버킷 챌린지'를 기획한 서윤성 나눔스토어 대표. 지난해 12월 3일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40여일 만에 15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리자 그도 놀란 눈치다.

'라이스버킷 챌린지'는 소외된 이웃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고 나눔의 손길을 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참가자는 쌀 30kg 이상을 들거나 30kg의 쌀을 쪽방촌에 기부해야 한다. 이후 두 명을 지목하면 이들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비슷한 구조다.

서 대표는 "자신이 직접 든 쌀을 쪽방촌으로 보낸다는 점에서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돈을 내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자부했다. 기부된 쌀은 나눔스토어를 통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쪽방촌상담소협의회에 보내진 후 쪽방촌 어르신들께 전달된다.

지금까지 모인 쌀은 10kg짜리 쌀 2000여포대로 목표는 1만포대에 달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가수 현숙, 배우 박상원, 정준호, 전 야구선수 양준혁 등 그간 정치권과 연예계, 운동선수 등 사회 각계의 참여가 이어졌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도 기부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 대표는 "각계 각층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기부가 늘었다"며 놀라워했다.

쪽방촌 어르신들이야말로 가장 소외되고 힘든 이웃이라고 서 대표는 말했다.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에 그는 캠페인을 결심했다. 그는 "쌀을 드리러 갈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 대표가 이끄는 나눔스토어는 수익의 8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금까지 쌀 화환 사업을 통해 결식아동과 미혼모, 독거노인 등의 소외계층을 지원해 왔다.

서 대표의 목표는 라이스버킷 챌린지의 확대다. 이를 위해 기업과의 연대와 SNS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생각이다. 그는 "일일이 찾아가는 기부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고, SNS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진다면 더 많은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17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화산에서 진행된 신입사원 산행에서 박삼구 회장과 신입사원들이 양의 해를 맞아 수건으로 양머리 모양을 만들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호아시아나

신입사원과 '자강불식' 외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산 정상까지 쉬지않고 함께 등반
"처음부터 전력 다해 달라" 주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올해 경영방침인 '자강불식'(自强不息)을 거듭 강조하며 전력을 다해 뛰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또 신입사원들과 함께한 산행에서는 젊은 직원들에 뒤지지 않는 체력과 의지를 보여줘 주위를 놀라게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 회장이 17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화산에서 그룹 입사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사원들과 산행을 함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0일 있었던 금호타이어와의 산행 때부터 회사를 강하게 만들려면 다 같이 합심하고, 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정상에 오를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박 회장은 17일 있었던 산행에서도 선두에서 쉬지 않고 정상에 올라 신입사원들에 뒤지지 않는 열정과 체력을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산행에 동행한 한 관계자는 "동반한 신입사원들과 비교해도 체력만큼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말 주요계열사의 경영 정상화 움직임을 계기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16일 전 계열사 임원이 참석한 상반기 임원전략경영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옛날에는 마라톤에서 살살 뛰다 나중에 역전하는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선두그룹에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뛰어 달라"고 주문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中企 애로해소·국민 경제부흥 책임갖고 업무"

36년 만에 첫 '민간 출신'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취임



민간 출신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첫 이사장에 오른 임채운(사진) 서강대학교 교수가 19일 공식 취임했다.

박철규 전 이사장이 후임으로 임명된 임 이사장은 앞으로 3년간 중진공을 이끌게 된다. 임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내수침체와 저성장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경제를 부흥시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료 출신이 도맡아 왔던 중진공 이사장에 민간 출신이 임명된 것은 36년 역사상 처음인 만큼,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상당하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말이 많은 관피아 논란의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학을 전공한 임 이사장은 마케팅과 유통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이에 연간 3조원 가량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진공의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한층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인들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임 이사장의 철학이다. 대기업을 통한 낙수효과가 아닌, 중소기업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김정유 기자 thec98@

고졸 29명 채용 CJ대한통운, 부모님 초청 수료식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식 및 부모님 초청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신입사원이 사령장과 배지를 수여받고 있다. 사진제공 CJ대한통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필동에 자리 잡은 CJ인재원. 단정하게 양복을 갖춰 입은 앳된 얼굴의 남녀 직장인들 29명이 단상에 열을 지어 서 있었다.

전국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출신인 이들은 CJ대한통운의 2014 하반기 고졸 신입사원들로 이 자리에 섰고, 부모들은 행사장 의자에 앉아 축하의 박수를 쳤다. 행사 도중 수료 소감과 신입사원의 다짐을 낭독하는 의젓한 자녀를 보며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CJ대한통운은 고졸 인턴 29명을 정식 사원으로 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CJ대한통운의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1기에 선발된 이후 방학마다 합숙 교육을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신입사원 전원을 택배·항만하역·물류센터·국제물류 등 전공에 따라 전국 각지의 사업장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뺑소니 사고가 만들어준 '모자의 정'

폐지줍던 할머니 교통사고 당해
담당 경찰 매일 병실 찾아 간병



오 경사(오른쪽)가 맹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 위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독거노인이 경찰을 새 아들로 얻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35분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 이면도로에서 폐지를 줍던 맹모(71·여)씨는 승용차 뺑소니를 당했다.

우측 발목과 팔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맹씨는 금천경찰서 소속 오의태(40) 경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하지만 맹씨가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20년째 혼자 살고 있어 치료비는 물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오 경사가 맹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 경사는 매일 출퇴근길에 맹씨의 병실을 찾아 위로했다.

오 경사는 "딱한 할머니의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병실을 찾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로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조선시대 생선회 즐겨… 4명 중 1명 간·폐흡충

조선시대 사람들도 생선회와 게, 가재 등을 날로 즐겨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명 중 1명꼴로 간·폐흡충에 감염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채종일(기생충학교실) 및 기호철·신동훈(생물인류학 및 고병리학연구실) 교수와 단국대 의대 서민(기생충학교실)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다양한 시료와 문헌, 조선시대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미이라 등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사람들 중 27.8%는 간·폐흡충에 감염됐으며 감염 주원인으로 민물생선, 민물 가재, 민물 게, 생굴 등 4가지를 꼽았다. 정경진 기자 jungkj@

인사

◆한국감정원 ◇1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양수 △홍보실장 변성렬 △보상사업처장 임병수 △부동산공시처장 이희원 ◇2급 승진 △혁신평가부장 마정호 △타당성조사단장 윤득신 △광주지사 부장 김재남 △주택통계부장 김세기 △비서팀장 김대환 △노사협력부장 박행규 △법무지원부장 김경헌 △경기성남지사 부장 강대일 △부동산정책연구부장 이남훈

◆외환은행 ◇지점장 전보 △강남구청역 목옥균 △광장동 노광윤 △구성 전세영 △남가좌동 김정래 △남동공단 이문성 △노원동 남경일 △논현남 김기형 △논현동 장재영 △다대동 신성훈 △대구 곽정환 △동울산 김재겸 △반포자이 최희수 △범계역 박상희 △범어동 김동주 △사상 정성출 △삼산 전태일 △상록수 김호철 △상무 박복수 △서면남 류철수 △석관동 홍성구 △성서공단 윤상보 △소공동 이재우 △송탄 김현석 △수원정자동 홍기수 △신갈 서재원 △신반포 박은주 △양정동 박정석 △여의도광장 최윤현 △역삼중앙 조항철 △영등포 허윤배 △오산 조영주 △우면동 조대석 △울산 이성원 △원주 한웅섭 △월배역 신철식 △이태원 이동국 △전주 정광영 △전주공단 김영래 △제주 정상훈 △종로 이상철 △주례동 김왕섭 △주안공단 김명균 △청주 송민철 △파주 황의관 △학동역 이창환 △한남동 오진환 △한티역 서임선 △해운대우동 최영호 △홍제역 한억만 △화곡역 임병석 △화정역 박종희 ◇SAM (Senior Account Manager) 전보 △강남역 이장우 △구미 임경일 △군자동 안병훈 △김해 민경남 △노원동 이기원 △둔산 유승오 △사상 이현수 △서소문 박찬욱 △성수역 황용규 △신설동 박진중 △안산 박성준 △약수역 김성수 △양산 심웅의 △역삼동 유용애 △역삼중앙 김종배 △충무로 이수복 △파주 원홍식 △한남동 전광식 ◇SRM (Senior Relationship Manager) 전보 △서소문 이경호 ◇본점팀장 전보 △재무기획부 이동수 △중소기업지원부 박귀호 △중소기업지원부 이훈근 ◇해외지점장 전보 △아부다비 이상배 ◇국외현지법인 전보 △KEB LA FINCO 이석경(법인장) △PT Bank KEB Hana Indonesia 곽희진(이사)

◆하나은행 ◇부장 전보 △개인여신심사부 고태진 △대전영업부 겸 RM 성병석 △충청정책지원부 윤순기 ◇지점장 전보 △삼전동 강구 △풍납동 강원복 △강남PB센터 강홍규 △대구중앙 권기범 △신림역 권기욱 △서판교 권진택 △용인동백 김대환 △천안중앙 김대환 △도안신도시 김상철 △일산대화 김선태 △흑석뉴타운 김성호 △원당 김영만 △부사동 김용갑 △동탄 김재천 △수성동 김정근 △오류동 김정훈 △포항중앙 김주엽 △대구죽전 김치환 △부산대 김현호 △가오동 김희자 △우장산역 김희정 △대방동 나정환 △사직동 노도영 △광안동 류각준 △용운동 류정심 △방배남 문기영 △구미동 문병준 △판교역 문창익 △변동 박노환 △시흥남 박면순 △청담사거리 박상연 △중앙일보 박연택 △침산동 박연홍 △연신내 박용관 △창원 박재목 △김포신도시 박지훈 △둔산뉴타운 방명심 △낙성대역 부기하 △하남 서동건 △면목역 서보식 △오산원동 서양원 △수지동천 서항석 △온천동 석현복 △판암동 송동헌 △신촌역 신기인 △시지 신명호 △춘천 신운주 △청량리 안병희 △전농동 안석중 △고덕역 안신규 △강동구청역 안정숙 △금남로 양동원 △세류동 엄태섭 △방이동 오경창 △개포동 유영희 △반포자이 유재은 △공주 윤강호 △방배본동 윤대준 △원주 윤병철 △이촌동 윤봉인 △행당역 윤영철 △부평 이근수 △휘경동 이기배 △동림동 이동훈 △서대신동 이병갑 △상도동 이석정 △학여울역 이성은 △마석 이성환 △화정 이원근 △방배서래 이장성 △명일동 이정현 △봉선동 임경수 △마린시티 임광민 △해운대 임문식 △호수마을 임인목 △방배중앙 임재봉 △도마동 장세현 △영업1부PB센터 정원기 △하안동 정일영 △송이 정재훈 △봉천역 조병태 △대동 [012860] 주영신 △번동 최영찬 △유성구청 최영희 △대구서 최재찬 △율량동 최춘서 △장충동 최형욱 △석계역 추재호 △서역삼 하재기 △노은 한승훈 △태평동 홍석△청계4가 홍성화 △돈암동 홍헌기

◆KB국민카드 ◇이동 〈부장〉 △영업지원부 한동욱 △마케팅부 신성훈 △고객서비스부 제갈훈 △신사업추진부 박기용 △상품기획부 윤주철 △상품관리부 조용국 △데이터전략부 최엄문 △자금관리부 이관우 △회원심사부 천영국 △업무지원부 정하진 〈실장〉 △프로세스운영실 신현종 〈지점장〉 △강동지점 이해정 △영등포지점 이랑숙 △인천지점 안상원 △안양지점 백성식 △부천지점 김영수 △동래지점 박인수 △대구지점 박기종 △광주지점 이재흥 △전주지점 장용일

◆KT스카이라이프 ◇임원 임명 △부사장 김윤수 △고객서비스본부장(상무) 류정순 △영업본부 수도권영업단장(상무) 서광민 ◇임원 승진 △영업본부 서부영업단장(상무) 김선원 ◇임원 전보 △기술본부장(상무) 이한 ◇실장 임명 △정책협력실장 김선우 ◇단장 전보 △영업본부 동부영업단장 권혁진 ◇팀장급 임명 및 전보 △영업본부 수도권영업단 수도권남부지사장 조이현 △영업본부 수도권영업단 수도권북부지사장 채학석 △영업본부 수도권영업단 수도권서부지사장 엄형식 △영업본부 동부영업단 대구경북지사장 조경연 △영업본부 동부영업단 부산경남지사장 양춘호 △영업업본부 동부영업단 강원지사장 하재식 △영업본부 서부영업단 대전충남지사장 박병욱 △영업본부 서부영업단 충북지사장 임연승 △영업본부 서부영업단 전북지사장 배남정 △경영기획실 기획조정팀장 양춘식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임태형 △정책협력실 홍보팀장 오광훈 △콘텐츠운영본부 콘텐츠전략팀장 김경렬 △콘텐츠운영본부 콘텐츠사업팀장 홍정기 △콘텐츠운영본부 플랫폼사업팀장 이건영 △콘텐츠운영본부 사회공헌팀장 정구선 △영업본부 마케팅기획팀장 이형진 △영업본부 영업관리팀장 박현우 △영업본부 MATV사업팀장 이근준 △영업본부 수도권영업단 수도권영업지원팀장 이석호 △영업본부 동부영업단 동부영업지원팀장 이향석 △고객서비스본부 CS팀장 이명선 △고객서비스본부 영업지원팀장 공필구 △고객서비스본부 고객혁신팀장 윤지숙 △기술본부 기술개발팀장 예문해 △기술본부 인프라기획팀장 석영찬 △기술본부 방송운용팀장 이종수 △기술본부 R&D Campus팀장 이화성 △기술본부 ICT운영팀장 류신호 △기술본부 UHD 수신설비 개발 TFT장 이진호

부음

▲장태섭(KB투자증권 주식영업팀 이사)씨 부친상=18일 오후 9시 45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 4층 VIP실, 발인 20일 12시 20분, 장지 서울추모공, 02-797-4444

▲김태룡(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단장)씨 모친상 = 18일 오후,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51-610-9009

▲정연국(MBC 보도국 취재센터장·100분 토론 앵커)씨 모친상 = 18일 오전 4시, 울산 영락원 501호, 발인 20일 오전 7시. 052-272-1111

▲이현지(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장욱씨 부친상, 신재성(㈜유신 수자원부)씨 장인상, 이우성(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 기자)씨 숙부상 = 18일 오전 2시 45분, 성남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7시, 031-708-4444

▲김헌표·석표(부산 금정구청)·완표(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 전무)씨 모친상, 김헌곤(부산시청)씨 장모상 = 18일 오전 5시, 동국대 경주병원 특실 1호, 발인 20일 오전 7시, 054-776-9411

▲김재하(서울예대 교수)·재봉(현대증권 상무)·혜선(보람한의원 원장)씨 모친상, 권두영(장쾌한내과 원장)씨 장모상 = 17일 오후 1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2-3010-2362



공병호의 독서산책

오노즈카 미노루 '껌만 씹어도 머리가 좋아진다'

"저 친구들, 버르장머리 없이 저렇게 껌을 찍찍 씹을까." 메이저리그 중계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 시각에서 보면 '경박하다'거나 '매너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수들은 경험을 통해 껌씹기가 긴장을 완화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나가와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오노즈카 미노루의 '껌만 씹어도 머리가 좋아진다'(클라우드나인)는 껌씹기에 대한 통념을 과학적이고 경험적 증거로 뒤집는 책이다. 저자는 "수시로 의식하면서 껌을 씹으라"고 적극적으로 권할 정도다.

이 책을 접하기 전부터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음으로써 뇌 발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왔다. 하지만 이처럼 체계적으로 씹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은 드물었다. 씹기는 왜 중요할까.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쁜 현대인에게 매 끼니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씹으라고 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좋은 대안이 바로 껌씹기다. 어떤 껌이 좋을까. 저자는 당분의 함유량에 신경을 쓰라고 권한다. 설탕이나 포도당, 물엿, 과당 등 충치의 원인이 되는 산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성분 표시에 '당류 0그램'이라 기록된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껌을 어떻게 씹어야 할까. 껌을 씹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의식하며 천천히 꼭꼭 씹기'다. 정확하게 32초를 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32초 동안 천천히 꼭꼭 씹고 32초 동안 쉬는 것을 반복하면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 등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껌도 그냥 씹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천천히 꼭꼭 씹을 때만이 껌씹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꼭꼭 씹는 동안 구체적으로 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인지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연합 영역뿐만 아니라 운동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보조운동 영역', 운동이나 감각을 중계하는 '시상', 운동의 학습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소뇌', 입과 턱의 정보가 포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는 '섬' 등 뇌의 넓은 영역이 활성화된다."

또 하나, 껌을 씹을 때마다 우리는 긴장이 이완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일까. 확실히 껌을 씹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억제한다. '지금 이것이야말로 스트레스다!"라고 결정하는 전두연합 영역의 활동을 확실하게 감소시킨다. 끝으로 껌씹기는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분비를 줄인다. 저자는 극도의 긴장 상태가 찾아오기 전에 10분 정도만 껌을 씹으면 긴장감 완화 효과에 있어 확실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박하다' '매너가 나쁘다'… 껌씹기에 대한 일반적 통념 과학적이고 경험적 증거로 뒤집기 뇌 운동·감각영역 활성화 효과

껌씹기의 장기 효과는 더욱 놀랍다. 반복된 껌씹기는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습관이다. 노인들 틀니나 임플란트를 조정한 다음에 무엇이든 씹을 수 있게 된 상태가 치매 증세를 비롯해 많은 변화를 일으킨 임상 경험이 제시되고 있다.

저자는 틀니와 임플란트를 한 뒤 음식을 제대로 씹는 것만으로 치매 증상이 개선된 사례들을 수없이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이가 들수록 껌씹기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저자는 힘줘 말한다. 얇지만 통념 깨뜨리기를 입증한 대단히 실용적인 책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핀테크 바로보기

핀테크 혁명이 금융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IT기술의 결합이다. 스마트 혁명이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민주화의 물결이 SNS, 소셜 커머스를 거쳐 이제 금융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그림자다. 금융의 경쟁력이 뒤처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작금의 핀테크 혁명은 금융실명제보다 강력한 금융 혁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금융 민주화로서 핀테크는 P2P금융의 형태로 당사자 간의 저비용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금융권에 미증유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금융권이 숨는다고 사라지는 위기가 아니기에, 정면으로 여타 국가보다 앞서서 새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와해적 혁신의 시기에 기존 산업은 점진적 대처를 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 진공관 시대의 강자 모두가 트랜지스터 시대에 사라지고, 이들은 다시 집적회로 시대에 사라져 갔다. 새로운 진입자들의 와해적 혁신 역량에 패권을 넘겨준 것이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이 IT기술을 와해적으로 수용하는 시나리오와 IT업체들이 새로운 금융의 강자로 부상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분명한 것은 점진적 대처는 현명한 대안이 아니고, 불투명한 진입장벽의 구축은 국가 전체의 추락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안별 개별 대처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내규인 규준에 의거한 세밀한 관리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특정 기술을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한하는 작금의 규준은 명백히 전자금융의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 위배된다. 사전 개별 규제에서 사후 포괄 규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이 책임진다는 원칙이 바젤 협약의 기본 정신이다.

와해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의 영역이다.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하기에 실행하면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Learning by Doing). 이 과정에서 분명 실패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작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크게 키워 가는 것이 핵심 추진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혁신의 씨앗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규제를 없앤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페이게이트(PG) 사업의 자본금을 400억원으로 키운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결국 기존의 카드사만을 위한 명목상의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는 핀테크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금융을 모르는 사람은 개혁을 주창하나, 구체적 대안이 없고,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개혁을 저지해 왔다. 그런데 핀테크 혁명은 금융 차원이 아니라 IT기술이라는 혁신적 효율의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기존의 기득권 수호 전략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핀테크의 선도기업이고,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온덱, 렌딩클럽 등도 IT에서 출발한 기업들이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도태시킬 것이다.'

핀테크는 크게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개인 혹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분석 사업자들, 특허 혹은 기술 가치의 평가사들, 기업의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전문기업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다.

이들이 결합해 기존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결제 대행, 송금 등 각종 금융 업무를 혁신해 갈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작년도 창조경제 연구회의 핵심 과제였던 크라우드펀딩과 공인인증서의 실질적 대체가 촉매제가 될 것이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은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바탕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제품과 금융이 결합하는 글로벌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핀테크 혁명은 모든 산업 활동을 가볍게 만들어 진정한 서비스 사회 구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스마트 혁명이 촉발시킨 금융 민주화인 것이다.

오늘의 배국남 www.baekn.com

중국 소설 원작 '허삼관' 감독 겸 주연 맡은 하정우



배국남닷컴은 영화 '허삼관'으로 감독, 주연에 동시 도전한 배우 하정우를 만났다. 지난 15일 개봉한 '허삼관'은 세계적 소설가 중국 위화의 대표작 '허삼관 매혈기'를 원작으로 한 코믹 가족드라마를 표방한 작품이다. 돈 없고, 대책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뒤끝만은 넘치는 허삼관이 절세미녀 아내와 세 아들과 관련해 겪는 우여곡절을 담은 작품이다. 주목할 점은 하정우가 감독과 주연배우로 1인 2역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에 하정우는 "2011년 말 처음 소설을 받았다. 당시 감독이 아닌 주연배우로 제의를 받았다. 나이가 어려 역할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 고사했지만 제작사에서 제가 마흔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 했다. 결국 1년만 더 기다려 달라 말하고 수락했다"며 "그런데 당장 정해진 감독이 없었다. 연출 제의도 함께 받았다. 결정할 수 있었던 힘은 '허삼관'의 매력적 스토리 때문이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이어 "초등학교 때 찰리 채플린을 보면서 배우와 감독을 겸하는 것을 막연하게 꿈꿨다"며 "'베를린'을 끝내고 매너리즘에 빠졌다. 제 연기가 소비되고 있다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꼈다. 더 나은 배우가 되기 위해 감독을 생각했다. 영화라는 작업에 대한 원론적 질문이 생겼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라는 생각으로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동시에 여주인공을 흔쾌히 맡아준 배우 하지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극중 하지원의 존재감이 가장 크다.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다"며 "허옥란은 소설에서 더 가볍고 수다쟁이이며 색이 있는 인물이다. 이를 '한국' '충정도'에 입혀 재해석했다. 영화 전체 인물 중 허옥란이 안방마님처럼 중심을 잡아줬으면 했다. 하지원은 존재 자체만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배우다. 도시적이면서 건강한 이미지의 공존은 이질감 없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무한신뢰를 보냈다.

최두선 기자 sun@

온라인 와글와글

군인연금 적자보전에 19조, 언제까지 세금으로 메울 건데?



○…군인연금이 42년 전 고갈됐으며 그동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나라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는 "공무원연금보다 군인연금 먼저 손대라. 적자 보전 그만하고", "할 일 없는 똥별들 숫자 줄여라. 수백명 스타들 골프장 짓는데 1200억원 쓰고 30만이 넘는 병사들 복지비용에는 40억원 쓴다는데 말 다 했지",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알고 보니 나라를 축내는 역적들이네",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했다면 아깝다고 해선 안되는 거 아냐? 여기 분단국가거든", " 전쟁 나면 자주국방은 어렵다고 해도 최소 미군이 올 때까지 버텨주는 사람들인데 돈 아까운 건 국회의원 연봉이지 군인연금이 아니다",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군인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보완점부터 찾자" 등 지적이 많았다.

○…미국도 하는데 우리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과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하다. 네티즌은 "우린 상위 소득층한테 감세해 주고 서민한테 세금 더 걷어가는데", "우리와 정반대되는 정책이네요",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꿈꾸면서 세금은 내기 싫다는 사람들. 한심하다", "우리나라 부유층 해외 이민비율이 원래 높은데 더 걷는다고 하면 이탈률만 높아져. 서로 포용하는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소득세율은 미국, EU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 문제는 소득면제 계층이 많다는 거지. 부자증세만이 답은 아니다" 등 갑론을박을 펼쳤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터키 실종 10대 IS 무장단체 가담설 '충격'
2.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된 이유
3. 스위스발 쇼크에 금융기관 파산 공포
4. 국내 유명 초콜릿서 살아있는 벌레 발견 '경악'
5. 주택담보대출 '연2%대'…가계부채 더 늘어난다



데스크 칼럼

섬길 줄 아는 금투협회장을 뽑자



권 순 욱
자본시장부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누가 제3대 금융투자업계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적합한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율해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회원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회원사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3대 협회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는 각종 협회장 선출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그간 각종 협회장 자리는 관피아(관료출신), 정피아(정계출신), 학피아(학계출신)가 주름잡고 있던 무대였다. 사실 금투협회장을 제외하고는 회원사들의 투표로 협회장을 선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부분 청와대의 낙점을 받거나 유력 정치인의 후광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 정부는 관피아 척결론까지 들고 나왔을 정도다. 그리고 관피아 척결론의 틈바구니를 정피아와 학피아가 비집고 들어오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그래서 금투협회장 선거는 모범사례로 내세울 만하다.

지난 2009년 황건호 당시 증권업협회장이 초대 금투협회장에 선출된 이래 현 박종수 회장을 거쳐 3대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완전한 성숙기에 접어들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힘있는 권력자의 후광은 더 이상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여타 협회들과는 차별되고, 더 나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내일 있을 투표는 이런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회원사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는 박종수 현 협회장과 김성태 전 대우증권사장, 그리고 최경수 현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이 경합을 벌였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까지 벌이며 현 박종수 회장이 최경수 현 거래소 장을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 온전히 회원사들의 의지가 투영된 투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느니, 부총리가 밀고 있다느니 하는 모든 언설을 뒤로 하고 회원사들의 의지로 회장을 선출한 사례다.

이번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도 수많은 언설이 나돌았다.

암암리에 아무개 후보가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힘있는 후보라느니,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인의 최종 후보를 내정해놓고 면접을 봤느니 하는 말도 나돌았다. 후보 5인에 대한 면접이 끝나자마자 최종 후보 3인이 발표되는 상황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다.

최종 후보 3인이 결정된 후에도 말은 많다. 대규모 자산을 가진 어느 그룹에서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어떤 후보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사전면접을 앞두고 이미 최종 후보가 된 듯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위세를 은연중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투표권도 변수다. 전체 투표의 60%는 1사 1표, 나머지 40%는 협회비 분담률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협회비를 많이 내고 있는 대형사가 당락을 가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다. 3대 협회장은 누가 회원을 진정성있게 섬길 것으로 보이는지, 누가 회원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있는지 잘 살펴서 선출하기 바란다.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황영기 전 KB지주 회장 등 3인의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았다. 후보별로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중소형사 생존에 방점이 찍혔다. 황 전 회장은 정부와의 소통을 내세우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들은 충분히 공약을 검토하고 지지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회원사들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업계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품성과 덕성도 가려보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투자업계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이미 지난해 3000명 이상이 업계를 떠나야 했다. 새로운 수익원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저 정부의 시혜를 바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철저하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낮은 자세로 헌신할 수 있는 협회장 선출이다.

회원사들의 심사숙고와 신중한 투표권 행사를 기대한다.

kwonsw87@

객석

원스 인 더블린

김 수 민 유학생



하루에 열 두시간쯤은 가뿐하게 앉아서 일만해야 하는, 떠밀려서 살아야 하는 삶이 싫어서 홀연히 사표를 내고 세상에서 가장 천천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도시인 더블린에서 지낸 지 오늘로서 정확히 두달이 됐다.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려니" 싶었다. 속도전에 익숙해진 내가 문제지, 원래 이렇게 느릿느릿 음악과 맥주와 여유가 있는 나라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수년 전 여행했던 아일랜드 배경의 영화 원스의 주제곡처럼 'falling slowly', 느릿느릿 이 도시에 빠지고 있었다.

그러나 요새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일 뿐 내가 꿈꾸는 적당히 바쁘고, 적당히 여유있으며, 마냥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나라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유토피아를 꿈꿨구나 하고 생각할때가 많다.

2010년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이후 현재까지 은행, 건축,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했다. 매우 더디게 회복되고 있어서 더블린은 대낮부터 밤까지 슈퍼나 은행 근처에 구걸하는 젊은 거지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다. 식당에서 화장실 갈 때 휴대폰을 자리에 두고 갔다간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 맞기 십상이다. 의료서비스 역시 문제가 많아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이 아니면 의사 없이 수시간을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원래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고 했던가. 뭐든지 빨라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도시가 서울인 것만큼 우리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의료, IT, 교통 인프라 서비스가 분명히 있다. 다만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 너무 지쳐서 자꾸 다른 곳에 지상낙원이 있을 거라고 눈을 흘끔거릴 뿐이다.

슬프지만 진실을 알았기에 현재 여기서 약속된 시간을 사는 만큼 좋은 것만 보고 충분히 체험하고 돌아가리라 다짐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 역시 한국이 좋아'라면서 떠나기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치열한 삼십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기자수첩

韓流는 漢流로 변화 중?

최 두 선 문화부/sun@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통틀어 '문화예산'이라 명명한다. 2018년까지 2%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예산이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실망스럽다.

배우 추자현, 이민호 등의 중국 내 인지도 확산은 출연 작품의 성공과 체계적인 현지화 전략의 결과물이다. '별에서 온 그대', '런닝맨', '아빠! 어디가?' 등 콘텐츠의 인기 역시 자체 역량과 포맷의 성공으로 분석된다. 2%에 불과한 정부의 문화예산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못했다. '홀로서기'로 확보한 공로가 문화 융성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둔갑해 대중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 '별에서 온 그대'를 연출한 장태유 PD는 지난해 중국 진출을 선언했다. 우리의 스타 PD와 작가 등 인적 자원을 중국이 사들이고 있다. 우리의 콘텐츠가 국내를 기반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형태가 아닌 중국을 기반으로 국내에 역수입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른바 '한류(韓流)'가 '한류(漢流)'로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인적 자원과 콘텐츠가 선두에 선 기현상이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거대 자본이다. 한류를 수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류 그 자체를 사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선 것이다. 콘텐츠 제작 기반이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제작 환경과 자체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화계의 '동북공정'이 본격화된 지금 문화예산 2% 달성 목표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 점이 문화 강국의 위상을 자랑하고 그 결과물에 자화자찬하기보다 적극적인 예산과 지원 확대의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나날이 발전하는 한류 콘텐츠의 질적 영향력은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이 동반될 때 온전히 한류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한류 콘텐츠가 중국의 자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자본에 의지할 수 있는 날을 희망해 본다.

오상민의 현장

문화부 차장 겸 스포츠팀장

장충체육관, 잊힌 恨과 興을 찾다



서울 중구 장충동에 화색이 돌았다. 참 오랜만이다. 50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장충체육관 때문이다. 리모델링 개시부터 재개장까지 꼬박 2년 8개월이 걸렸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한국 체육계는 이 2년 8개월이란 시간 속에서 참 많은 것을 얻었다. 잊힌 한(恨)과 흥(興)에 대한 기억과 가치다.

장충동은 역사적으로 한(恨)과 흥(興)이 극명한 장소였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5년은 일본 자객들부터 명성황후가 시해된 슬픈 역사를 간직한 해다. 당시 궁내부 대신 이경직, 시위대장 홍계훈 등 많은 장병들은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았고, 이에 고종은 1900년 11월 그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지금의 장충단공원에 사당을 지었다.

장충동의 슬픈 역사는 그렇게 역사 속 한 페이지에 한(恨)으로 남아 120년이란 세월을 견뎌왔다. 하지만 1963년 건립된 장충체육관은 한국 체육사에 숱한 감동과 환희를 안기며 역사 속에서 희미해진 한(恨)을 흥(興)으로 승화시켰다.

김기수는 1966년 6월 세계복싱협회(WBA) 주니어미들급 타이틀전에서 1960년 로마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니노 벤베누티(이탈리아)를 2-1 판정승으로 꺾고 한국 프로복싱 사상 첫 세계챔피언에 올랐고, '박치기왕' 김일은 1967년 4월 세계 프로레슬링 헤비급 챔피언이 됐다.

스포츠 스타의 산실이기도 했다. 1983년 출범한 농구대잔치와 민속씨름을 통해 이만기, 이봉걸, 이준희 등 천하장사가 줄줄이 탄생했고, '슛도사' 이충희와 '전자슈터' 김현준의 3점슛 대결도 연일 명승부를 이끌어냈다.

장충체육관 주변은 장충동족발골목이 형성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은 애환의 장소가 됐다. 하지만 장충체육관의 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2000년대 이후 노후시설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잠실체육관과 잠실학생체육관에 밀려 스포츠 경기장으로서의 위상을 조금씩 잃어갔다. 스포츠 경기를 대신해 각종 공연과 문화 행사로 빈 시간을 채워야 했다.

이에 장충체육관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은 장충체육관 철거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반세기 동안 한국 체육계를 이끌며 한(恨)을 흥(興)으로 승화시킨 장충체육관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장충체육관이 국내 최초 실내경기장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5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시민들의 공간이라는 점을 적극 반영, 기본 뼈대는 유지한 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장충체육관의 지난 50년은 한국 체육사 5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충체육관이 겪을 앞으로의 50년은 한국 체육의 미래 50년이다. 지금 한반도는 개발주의에 이끌려 무분별한 개발이 강행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수많은 시민과 체육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된 동대문운동장도 개발주의의 희생양이다. 80년 역사 속에서 숱한 감동과 환희를 안긴 동대문운동장의 잊힌 한(恨)과 흥(興)을 찾지 못한 채 우리 기억 속에서 싸늘하게 지워져야 했다.

golf5@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 자본시장부 (02)799-2658 |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 미래산업부 (02)799-2663 |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 사회팀 (02)799-2656 |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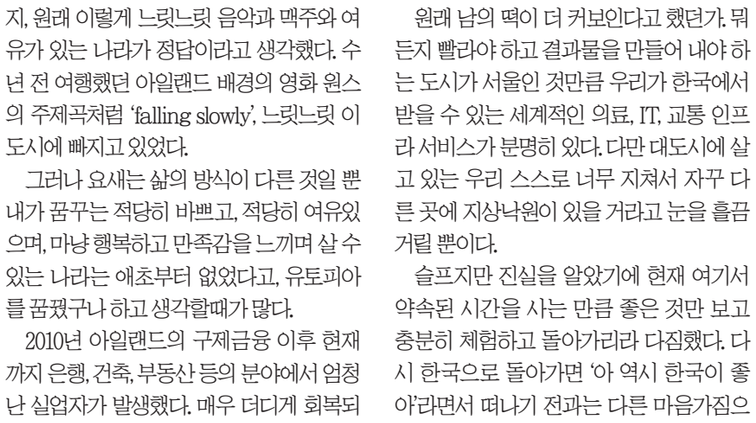
www.hainaim.com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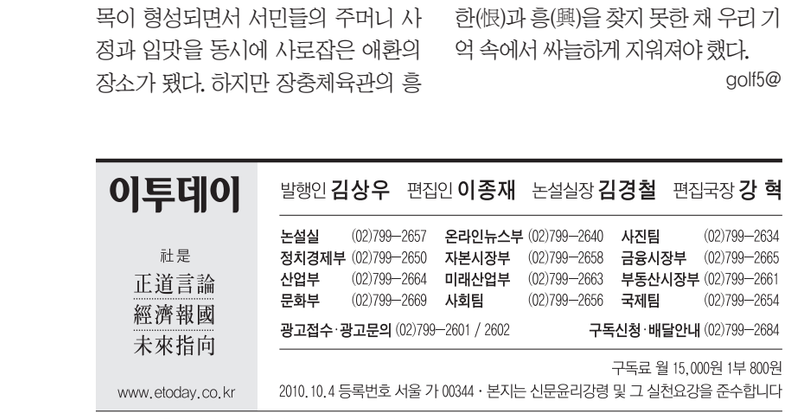
"만일 마더 테레사께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을 것인가" —정호승

가난을 고발하려 인도로 떠난 사진가, 마더의 사랑에 물들다

마더 테레사, 넘치는 사랑

시인 정호승과 그 아버지의 손길로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깊고 큰 사랑!
인도 콜카타, 마더 테레사의 곁에서 보낸 사진작가의 7년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조광호(신부, 화가) '신이 어디 계시며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분과,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참사랑과 행복과 기쁨, 보람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분에게' 나는 이 책을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이해인(수녀, 시인) 생생한 사랑의 기록인 이 책 속의 사진과 글을 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기도이고 묵상이며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이웃사랑의 지침서입니다.

김혜자(배우)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희생이라는 실천을 통해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가르치신 넘치는 사랑뿐입니다.

오키 모리히로 찍고 쓰다
장칭현 정호승 옮기고 다듬다
양장본 | 272쪽 | 값 14,500원

직경 42.67㎜ 공의 불꽃튀는 '파워게임'

골프용품업체 '골프공 마케팅' 전쟁

'스릭슨' 박인비 이어 김효주까지 대박 행진
'볼빅'이 후원한 이일희·이미향 LPGA 우승
브랜드 위상 높이고 매출 증대 효과 톡톡
'혼마골프' 미녀군단 꾸리고 시장 경쟁 합류

골프용품업체의 골프공 마케팅 대결이 뜨겁다. 직경 42.67㎜의 작은 공은 골프 경기장 주인공이다. 티샷부터 마지막 퍼팅까지 골프공의 향방에 따라 매주 수십만 달러(PGA투어 총상금 기준)의 상금 주인이 뒤바뀐다. 그래서인지 골프용품업체들의 골프공 마케팅은 해를 거듭할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골프용품업체들이 공프공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소모품이라는 특성상 골프클럽에 비해 구입 주기가 짧고 A/S가 없다. 게다가 재고도 쌓이지 않아 업체로서는 알토란 매출이 보장된다. 골프용품업체의 골프공 마케팅 기본은 선수 후원이다. 남녀 프로골퍼와의 골프공 사용 계약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명 선수가 특정 제품을 사용해 우승할 경우 해당 브랜드의 직접적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선수 후원으로 가장 쏠쏠한 재미를 본 브랜드는 단연 타이틀리스트다. 다년간 시장점유율 부동의 1위를 지켜온 타이틀리스트는 지난해 국내 남녀 프로골프투어에서도 프로 선수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국내 남녀 프로골프투어 공식 기록업체인 씨앤피에스(C&PS)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대회에서 74%는 타이틀리스트 골프공을 사용했다. 특히 14개 대회 중 10명은 타이틀리스트 골프공을 사용해 우승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는 57%의 사용률을 보였다.

국산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틈새시장 공략으로 극복했다. 몸값 비싼 선수보다 어린 유망주와 스폰서가 없는 무명 선수를 대상으로 후원했고, 컬러볼로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볼빅은 2013년 이일희(27)에 이어 지난해는 이미향(22)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며 세계 속의 국산 브랜드 위상을 높였다. 지난해 LPGA투어에서만 우승 1회와 2위 4회를 차지했다.

우승은 없지만 최운정(25)의 활약도 돋보였다. 2위 1회를 포함해 '톱10'에만 10차례 오르며 상금순위 10위(104만8932달러·11억3000만원)를 마크해 올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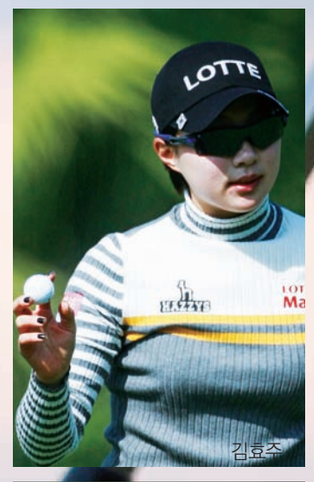
최근 2년간 선수 마케팅으로 가장 큰 재미를 본 브랜드는 스릭슨이다. 2013년 박인비(27·KB금융그룹)에 이어 지난해 초에는 김효주(20·롯데)와 계약해 박인비 못지않은 특수를 누렸다.

스릭슨은 또 올 시즌 LPGA투어에 데뷔하는 호주 교포 이민지(20)와 계약, 다시 한 번 선수 마케팅 특수를 노리고 있다. 이민지는 호주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지난해 호주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9월 프로 전향 전까지 여자골프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였다.

스릭슨은 이 외에도 코리안 브라더스의 맏형 최경주(45·SK텔레콤), 지난해 하나-외환 챔피언십 우승으로 LPGA투어에 직행한 백규정(20·CJ오쇼핑) 등 초대형 스타들과 계약하며 골프공 시장 2위 탈환을 벼르고 있다.

볼빅과 함께 국내 골프공 브랜드로 주목받는 넥센은 경남을 거점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경남 지역에 타이어 생산공장을 둔 넥센은 2013년 경남 가야CC에서 KLPGA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를 개최하는 등 골프공 시장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새롭게 골프공 시장에 뛰어든 업체도 있다. 김하늘(27·하이트진로), 허윤경(25·SBI저축은행) 등 미녀 골퍼군단을 꾸린 혼마골프는 지난해 6월 TW-G1과 TW-G1x라는 두 가지 모델을 선보이며 공프공 시장 경쟁에 합류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김효주


최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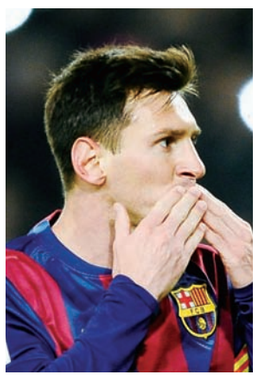
메시 '바이아웃 3200억'… 감당할 구단은?

"내 미래 나도 모른다" 이적설 불거져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 해당 두팀뿐
호날두 등 안정적 공격진 '레알'보다
'명가' 재건 희망 '맨유' 가능성 높아

리오넬 메시(28)가 바르셀로나를 떠난다면 어느 팀이 그의 몸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메시는 최근 이적설에 휩싸였다. 13일(한국시간)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 시즌엔 팀에 잔류하겠지만 내 미래는 나도 모른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동안 "은퇴할 때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겠다"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 물론 당장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메시가 말했듯 앞일은 모르는 것. 만약 메시가 이적을 택한다면 어느 팀으로 갈 수 있을까. 글로벌 회계법인 델로이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만이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FFP) 규정을 어기지 않고 메시의 이적료를 지불할 수 있다.

FFP 규정은 각 구단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맨유가 바르셀로나의 반대를 무릅쓰고 메시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협상을 마친 뒤 바르셀로나에 바이아웃 금액(구단이 거부 의사 없이 바로 수락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메시의 연봉은 2000만 유로(약 280억원), 바이아웃 금액은 2억5000만 유로(약 3200억원)로 알려져 있다.


리오넬 메시가 8일 엘체와의 코파 델 레이 16강 1차전에서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AP/뉴시스

'명가' 재건을 꿈꾸는 맨유는 실제 메시 영입에 관심이 있다. 시즌 초반 추락을 거듭했던 성적은 4위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퍼거슨 감독 시절을 생각한다면 성에 차지 않는 전력이다. 또 AS 모나코로부터 임대 영입한 라다멜 팔카오는 기대 이하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어 완전 영입 가능성은 낮다.

앞서 판 할 감독은 "원하는 선수가 나온다면 이적자금의 제한 없이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우드워드 부사장 역시 "맨유를 위해 뛸 수 있는 선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역대 최고 이적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레알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림 벤제마, 가레스 베일 등의 공격진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다. 여기에 바르셀로나와는 '엘 클라시코'로 대표되는 라이벌이라는 점에서 메시가 이적을 택할 가능성은 맨유에 비해 높지 않아 보인다. 최성근 기자 sg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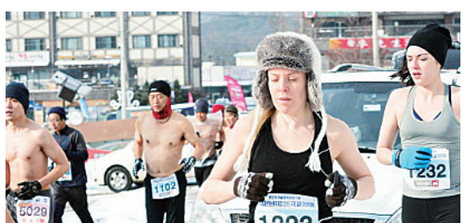
그냥 달리면 심심해서…

알몸·좀비 서바이벌·싱글 매칭 등 '이색 마라톤' 인기

웃옷을 벗어던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겨울 한파를 무색하게 만든 이들은 18일 오전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제천의림지 알몸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다. 흥미로운 건 참가 자격이다. 남자는 상의를 탈의해야만 참가할 수 있다. 하의는 반바지나 타이즈를 입어야 한다. 여성은 탱크탑 또는 스포츠브라·민소매만 허용된다. 더 흥미로운 건 노출이 많은 참가자에게 포토제닉상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단어 자체도 생소한 알몸 마라톤대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눈꽃축제 기간 중에도 알몸 마라톤대회가 개최됐다. 전국 마라톤 동호인 700여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한 국제 알몸 마라톤대회다.

최근에는 마라톤에 재미를 더한 이색 마라톤대회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 일산의 킨텍스에서는 좀비 서바이벌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좀비와의 추격전을 콘셉트로 한 이 대회는 마라톤에 재미라는 요소를 배가시킨 신개념 레이스로 정해진 시간 동안 코스를 돌며 좀비를 피하고 모든 미션을 완수하는 게임이다.


지난 11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눈꽃축제 기간 중 열린 알몸 마라톤 대회 모습. 뉴시스

전국 싱글 남녀로부터 주목받은 마라톤대회도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과천의 서울대공원에서는 싱글 남녀의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전국 싱글 남녀 4000여명이 참가해 7400쌍(중복 포함)이 매칭에 성공했다. 커플이 참가하는 마라톤대회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이 대회는 벚꽃을 배경으로 펼치는 커플들의 레이스로 참가비 중 일부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기부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Cover Story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 디트로이트 모터쇼

》 커버스토리 18·19면



현대자동차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15 북미 국제 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쏘나타 PHEV'와 크로스오버 픽업트럭 콘셉트카 '싼타크루즈'를 공개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쏘나타 PHEV를 배경으로 중장기 친환경차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자동차 新 트렌드 'S·E·T'

〈Smart〉 〈ECO〉 〈Pick up Truck〉

스마트

벤츠 무인차 자동차+전자+IT 결집
LG전자 '스테레오카메라' 탑재할 듯

친환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올해 상용화
현대차 '쏘나타 PHEV' 경쟁에 합세

픽업트럭

미국 경기회복 바람타고 신차 봇물
현대차 '싼타크루즈' 소형시장 공략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전기차입니다."

매리 바라 제네럴모터스(GM) 최고영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15 북미 국제 모터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순수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Bolt)'를 소개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기술 과시를 위해 너도 나도 선보였던 친환경차 전기차가 이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자동차로 단번에 부상한 순간이었다. 이어 매리 바라 CEO는 볼트를 2017년 3000만원대의 가격으로 공식 출시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선언했다.

자동차 산업의 화려한 축제인 이번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이달 25일까지 2주간 전 세계 자동차업체와 카 마니아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터쇼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성이 높은 기술들과 차량들이 대거 선보이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화두는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EHV)와 같은 '친환경차'와, 무인차로 대표되는 '스마트카', 살아난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픽업트럭'의 부활이다.

◇스마트(Smart)= 이번 모터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차를 꼽으라면 단연 벤츠의 무인차다. 운전자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무인차 앞에서는 관람객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자동차와 전자·IT 업체 간 합종연횡으로 상상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운전하는 재미를 잃지 않을까?"

이는 착각이다. 무인 자동차 역시 직접 주행이 가능한 스티어링휠(핸들)과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페달이 존재한다. 무인 자동차의 의미는 나이를 먹어 운전 능력이 둔해지는 노령자는 물론, 아이들까지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확대에 기술 이상의 큰 의미를 가져온다.

무인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상태와 보행자와 다른 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일이다. 즉, 외부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와 카메라 기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LG전자는 벤츠와 협력을 통해 벤츠 차량에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할 전망이다. 이처럼 스마트카의 대중화는 IT 강국 한국 업체에게 영토 확장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의 경우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친환경(ECO) =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모터쇼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미국 내 유가가 1배럴당 45달러(약 4만8000원)로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현장에서 만난 각국의 업체들은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같은 친환경차 모델은 향후 수십년간 바뀌지 않는 대세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는 상용화를 앞둔 PHEV 모델의 출시가 봇물을 이뤘다. PHEV는 배터리와 엔진을 함께 사용한다. 순수 전기차의 경우 아직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당분간 PHEV에 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도 '쏘나타 PHEV'를 공개하고 글로벌 경쟁에 합세했다. 현대차는 이 차를 GM 볼트보다 앞선 올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22개의 모델을 추가해 이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출발은 늦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는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선두업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픽업트럭(Pick up Truck) =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신형 픽업트럭을 대거 선보이며 미국 경기의 회복을 예고했다. 미국인들은 픽업트럭을 통해 경제활동 물론 여가 활동도 한다. 때문에 픽업트럭의 출시와 판매는 미국 경제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모터쇼에서 미국 빅3와 닛산, 토요타 등 일본자동차 업체들이 신형 픽업트럭을 공개했다. 여기에 현대차도 콘셉트카인 '싼타크루즈'를 공개했다. 싼타크루즈는 포니 픽업트럭 이후 이 회사가 내놓은 38년 만의 픽업트럭이다. 현대차는 대형 픽업트럭 위주인 미국 시장에서 SUV를 변형해 만든 소형 픽업트럭 싼타크루즈를 통해 틈새시장을 노릴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쉐보레 '볼트'

외부 전기로 충전 'PHEV' 친환경차의 세대교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GM의 쉐보레 '볼트(Volt)'.



현대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쏘나타'.



BMW의 'i8'.

GM·현대차·BMW 3파전

친환경차의 대세가 하이브리드카(HEV)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로 넘어왔다. PHEV는 배터리와 일반 엔진이 결합된 기존 하이브리드차에 외부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차 모드로 주행거리를 대폭 늘린 차량이다.

지난 12~13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15 북미 국제 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는 친환경차가 대거 공개됐다.

예년처럼 미래의 친환경차를 소개하는 대신, 당장 출시를 앞둔 차가 대거 공개돼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차가 올해 220만대를 넘어 오는 2020년까지 640만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친환경차 개발 경쟁에 돌입했다.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네럴모터스(GM)

GM '볼트 PHEV' LG화학 배터리 탑재 640㎞ 주행
현대차 '쏘나타 PHEV' 차선이탈경보 등 편의사양 적용
BMW 'i8' 최고출력 362마력… 선입견 깬 스포츠형카



은 이번 모터쇼에서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쉐보레의 '볼트(Volt) PHEV '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1.5ℓ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 차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배터리를 100% 충전할 경우 640㎞를 주행할 수 있다. 순수 전기차 모드로는 약 8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GM은 볼트를 이르면 오는 9월, 북미시장에 본격 출시하고 상용화에 들어가 PHEV 대중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GM은 또 내후년 상용화를 목표로 장거리 주행 순수 전기차 콘셉트카인 '볼트(Bolt)'도 깜짝 공개했다. 이 차는 전기차 볼트와 스파크EV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1회 충전으로 321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전기차 업체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에 사실상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테슬라가 고비용의 고급차 이미지라면 GM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보급해 주도권을 갖겠다는 전략이다.

매리 바라 GM CEO는 "볼트는 획기적인 가격·성능으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게임 체인저(산업 판도를 뒤바꾸는 제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대자동차도 친환경차 경쟁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쏘나타 PHEV'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쏘나타 PHEV는 154마력을 발휘하는 누우 2.0 직분사(GDI) 엔진과 50kW 전기모터,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시스템 최대출력 202마력을 자랑한다. 순수 전기차 모드의 경우 약 35㎞까지 주행이 가능해 볼트(Volt)와 비교하면 다소 떨어진다. 복합연비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할 때 휘발유 ℓ당 18㎞ 이상이다. 쏘나타 PHEV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자동으로 정차와 운행을 반복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등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이 대거 적용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의 미래 전략을 설명하면서 친환경차를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친환경차 개발은 이제 글로벌시장에서 미래 생존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각별하게 강조했다.

BMW도 오는 3월 국내 출시를 앞둔 PHEV 모델 'i8'을 내놨다. i8은 고성능을 발휘하는 스포츠카형 차량이다. '친환경차는 출력이 약하다'는 인식을 깨고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고객까지 한 번에 노리겠다는 의도다.

이 차량은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절묘히 조화시켜 최고출력 362마력을 구현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는 4.4초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같은 고성능에도 연비는 유럽연합(EU) 기준 47.6㎞/ℓ에 달해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김범근 기자 nova@



EXTREME ADAS로
사고예방까지 완벽하게.

Outstanding, 또 한번 모두를 압도하다.

아이나비QXD900View+

EXTREME ADAS EDITION



아이나비QXD900View+

FHD & FHD | 전방추돌 경보시스템 |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 브레이크 작동 기록 | 국내유일 2중 안심저장

▪SONY Exmor CMOS 센서 와 WDR기능으로 완벽한 영상구현 ▪전·후방 카메라 개별 밝기 조절 ▪빠르고 정확한 탐색을 위해 더욱 진화된 음성인식 ▪앞차의 출발을 알려주는 스마트기능 FVSA ▪GPS를 통한 단속지점 안내 '안전운행 도우미' 국내유일

첨단기술 융·복합 가속

자동차·전자·IT 힘 합친다

LG전자, 구글 무인차에 배터리 공급
GM·아우디 AT&T와 솔루션 개발
카메라·냉난방 등 가전업체와 협의도



혼다의 수소연료전지차 콘셉트카인 'FCV'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전시되고 있다. 블룸버그

자동차업체와 전자·IT업체의 협력이 강화된 것은 이번 '2015 디트로이트 모터쇼'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이들의 협력 방안이 디트로이트에서 수면 위로 본격 떠오르면서 모터쇼는 더 이상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사업 협력의 장으로 변모한 것도 눈여겨 볼 점이었다.

LG전자는 구글의 무인차에 배터리팩을 단독 공급하기로 했다. 구글은 모터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구글은 현재 세계 무인차 개발 연합인 '오픈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를 주도하고 있다. LG전자가 구글 무인차에 배터리를 단독 공급하면서 향후 시장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삼성SDI도 이번 모터쇼를 찾았다. 조남성 사장은 모터쇼에서 기자들에게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높았다"며 "협력을 강화해 더 잘해보자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어 "옛 제일모직 소재부문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이번 모터쇼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이번 모터쇼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전시장을 마련했다. 삼성SDI는 높은 기술력을 인정 받아 아우디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동차업체와 통신업체의 협력도 발 빠르게 이뤄지졌다. GM, 아우디, 테슬라 등 자동차업체들은 지난 12일(현지시간) AT&T와 스마트차 솔루션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AT&T가 주도하는 스마트차 연구개발(R&D) 협력체인 '드라이브 스튜디오'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 드라이브 스튜디오에는 퀄컴, 에릭슨, 액센츄어 등 글로벌 IT·컨설팅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자동차와 전장부품, 네트워크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개발한 통신모듈과 전장부품을 장착한 구글의 무인차가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AT&T의 통신망이 필요하다.

이외에 자동차, 전자·IT업체와의 기술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터리를 비롯해 외부 움직임을 포착하는 센서와 카메라, 자동차 냉난방 스마트시스템 개발 등 차와 가전의 결합은 실로 다양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카와 무인차의 시장이 향후 2~3년 본격 형성되면 서로 다른 업종의 업체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시장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日 닛산·토요타, 풀체인지 무기로 美시장 '정면도전'


포드 'F150' 사진제공 포드


닛산 '타이탄' 사진제공 닛산


현대차 '싼타크루즈' 사진제공 현대차

'픽업트럭' 약진

닛산 중대형급 '타이탄' 신형
토요타는 3000cc급 '타코마'
완전변경 모델로 시장 확대

'픽업트럭계 강자' 포드·GM
각 'F-150' '쉐보레 콜로라도'
신형차량 내세워 수성 나서

현대차도 '싼타크루즈' 공개
콤팩트 전략 틈새시장 노려

2015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뜨겁게 달군 차종은 단연 '픽업트럭'이다. 픽업트럭은 짐칸에 덮개가 없는 소형 트럭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힘이 좋다. 실용적 성향의 미국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인기 차종이다. 지난해 미국 지역 픽업트럭 판매량은 경기 호황과 유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미국 내 베스트셀링카 1~3위도 모두 픽업트럭이 휩쓸었다.

이번 모터쇼에선 일본 메이커의 공세가 거셌다. 일본의 닛산과 토요타는 새로운 픽업트럭을 일제히 선보이고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업체들과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

닛산은 대형 픽업트럭인 '타이탄'의 신형 모델을 통해 올해 판매량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타이탄은 지난해 판매량이 1만3000대에 그치면서 체면을 구겼다. 같은 차급에서 포드의 'F시리즈'가 75만대 판매고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닛산은 이번 모터쇼서 총 5대의 픽업트럭 중 3대를 10년 만에 풀체인지해 내놨다. 신형 타이탄은 5000cc급의 중대형이지만, 기존 모델보다 연비가 20%가량 높은 것이 특징이다.

토요타는 제네럴모터스(GM) 쉐보레의 '실버라도'를 겨냥해 9년 만에 풀체인지한 3000cc급 픽업트럭 타코마를 공개했다. 타코마는 북미 소형 픽업트럭 시장에서 6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모델이다. 대형차 위주의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서 올해 틈새시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의 강자인 포드와 GM 등 미국 업체들도 신형 픽업트럭을 내놓고 시장 수성에 나선다.

포드는 미국 픽업 판매 1위인 'F-150'을 10년 만에 대폭 개량하고, 고성능 괴물 트럭 '랩터'를 추가했다. 모터쇼 현장에서 크고 웅장한 모습의 F150 랩터가 등장하자 관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열열한 호응을 보였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픽업트럭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F-150의 기존 모델은 이번 모터쇼에서 '북미 올해의 트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GM은 대형 '쉐보레 콜로라도'와 함께 중형 픽업트럭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모터쇼에서 밝혔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는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이 2001년(1710만대 판매)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지난해 미국 신차 판매는 1650만대를 기록해 200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픽업트럭 경쟁에 가세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지난 1977년 포니 픽업트럭 이후 38년 만에 픽업트럭 콘셉트 모델인 '싼타크루즈'를 공개했다. 이 차는 미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일반 픽업트럭보다 크기가 작다. SUV와 픽업트럭의 느낌을 살려 부드럽고 콤팩트한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미 포화상태인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크기에 차별성을 둔 것. 현대차는 기존 대형 픽업 시장에선 승산이 없다고 보고 일찌감치 소형 픽업트럭 전략으로 노선을 결정했다.

아직까지 자세한 제원이나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 반응을 본 후 확신이 생기면 진출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모터쇼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북미 픽업트럭 시장은 매우 보수적"이라며 "픽업 콘셉트카를 내놓으면서 시장 상황을 살핀 후 반응이 좋을 경우 본격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성큼 다가온 무인차 시대

구글 "이르면 2년 내 도로 달릴 것"

벤츠, 기술·성능·친환경 3박자 갖춘 'F015 럭셔리 인 모션' 선봬



메르세데스벤츠 자율주행 무인차 'F015 럭셔리 인 모션'. 사진제공 메르세데스벤츠·블룸버그

"이전에는 서울에서 강릉으로 출장을 갈 때 주로 버스를 탔어요. 업무로 피곤한데 몸을 이끌고 운전까지 하는 게 버거웠죠. 그런데 무인차를 구입한 뒤로는 달라졌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가 일이 마무리되면 스마트폰을 봐요. 뉴스를 검색하고 웹툰을 보다가 게임을 하죠. 그러다 싫증이 나면 의자를 뒤로 돌려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와 담소를 나누기도 해요."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이 같은 장면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성대히 막을 연 '북미 오토쇼'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증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선보인 무인차 'F015 럭셔리 인 모션'은 완전한 자율주행을 하는 차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량에 장착된 각종 센서와 네트워크 시스템이 도로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F015 럭셔리 인 모션은 알루미늄과 고강도 철제, 탄소섬유를 소재로 쓴 일체형 차체로 구성됐다. 동력은 후방에 장착된 두 개의 전기모터와 수소 연료탱크에서 얻는다. 최고출력은 272마력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7초에 불과하다. 무인차의 기술과 고성능, 친환경 등 3박자의 최첨단 사양을 갖춘 셈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벤츠의 F015 럭셔리 인 모션에 주목했다. 그는 벤츠 전시장에서 이 차를 본 뒤 "유니크하다"고 평가했다.

IT의 강자인 구글은 이번 모터쇼에서 무인차의 청사진도 내놨다. 구글의 무인차 개발사업을 지휘하는 크리스 엄슨은 "2~5년 안에 일반인이 실제 도로에서 무인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무인차가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만큼,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필즈 포드 최고경영자(CEO) 역시 "향후 5년 내에 도로 위에 무인차가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인차의 시장 전망은 밝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오는 2035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4대 중 1대가 무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인차가 도로 위에 첫 등장하는 시기는 2017년으로 봤다. 이후 시장 규모의 성장세가 이어져 2025년에는 420억 달러(약 46조원)의 무인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했다.

자동차 판매가 추세적 하향 위기를 겪고 있는 제조사들에 무인차 시장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NEW PRODUCT

잔디로 온라인 백세로닷컴 오픈기념!

고객초청 50% 세일!

잔디로 이지 힐클립 천연가죽 신사화!
천연 소가죽, 뒷굽 교체형(특허)
국내생산



DM-211
잔디로 윙팁 신사화
색 상: 검정색, 진밤색
판매가: ~~₩176,000원~~ →
50% 할인가: ₩**88,000**원

잔디로 이지 힐클립
신사화는 뒷굽이 닳았을 때
누구나 쉽게 구두 뒷굽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DM-212 스트레이트 팁 신사화 / 검정색
판매가: ~~₩176,000원~~ → ₩**88,000**원



DM-212 스트레이트 팁 신사화 / 진밤색
판매가: ~~₩176,000원~~ → ₩**88,000**원



DM-213 유팁 신사화 / 검정색, 진밤색
판매가: ~~₩176,000원~~ → ₩**88,000**원

영국수입 피타드 천연가죽
골프벨트 1+1이벤트!

100% 국내생산





검정색, 밤색, 적색, 주황색, 노랑색, 회색, 백색 중 선택

품질이 다른 명품가죽 컬러 골프벨트 2개!
소비지가격: ~~88,000원~~ → 할인가격: **48,000**원

www.jandiro.com | www.baeksero.com | 대리점 문의: 02)2690-9002
제품문의: 02)6909-8834 서울역점: 02)6959-4900(서울역 1호선 3번출구) 목동점: 02)2608-7400
분당점: 031)715-9933 인덕원점: 031)422-8688 광주점: 062)351-9000 전주점: 063)276-5000

JANDIRO GOLF

“모바일 비켜”…온라인게임 ‘부활의 노래’

모바일게임의 성장세에 밀려 좀처럼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던 온라인게임이 올해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국내 게임사들은 각각 새로운 대작 온라인게임을 출시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작년 대부분 흥행실패 쓴맛
올해 최소 30여종 출시대기
엔씨소프트 ‘리니지 이터널’
‘지스타 2014’서 시연 눈길
넥슨, 8종이나 선보일 예정
‘메이플2’ ‘서든어택2’ 기대

◇30여종 PC온라인게임 신작 출시 예고 = 지난해 국내 게임사가 선보인 온라인게임은 총 50여종으로, 이 중 재론칭 게임과 웹게임 등을 제외하면 20여종에 달한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대다수의 게임이 초반 흥행세를 이어나가지 못했으며, 신작 온라인게임의 개발이 중단되는 등 초라한 한해를 보냈다.

이러한 성적에서 탈피하고자 게임사들은 올해를 반등의 기회로 보고 대작 게임을 잇따라 출시하거나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출시됐거나 예정 중인 작품은 최소 30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먼저 엔씨소프트는 올해 상반기에 캐주얼 게임 ‘마스터X마스터’와 ‘리니지 이터널’을 선보인다. 엔씨소프트의 첫 캐주얼 게임인 ‘마스터X마스터’는 새로운 전투 방식인 ‘태그 시스템’을 도입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캐릭터를 사용해 플레이할 수 있다. 다양한 공격 스타일과 총탄을 피하는 간단한 조작을 통해 슈팅게임의 시원한 타격감과 컨트롤의 재미를 함께 구현했다.

지난해 ‘지스타 2014’에서 처음 시연 버전이 공개된 리니지 이터널은 리니지 세계관을 있는 MMORPG게임이다. 대규모로 진화된 전투 시스템을 도입해 몰입감을 높였으며 플레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스마트뷰, 주변 지형물을 활용하는 인터랙티브 오브젝트 등 대규모의 스케일을 자랑한다.

넥슨은 올해 신작을 무려 8종이나 선보인다. 그중 가장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단연 ‘메이플스토리2’다. 전작인 메이플스토리가 아직도 온라인 게임 톱10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인기작으로 후속작에 대한 유저의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알파테스트에서 귀여운 디자인과 의상, 생활 콘텐츠, 미니게임 등을 통해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선보였다. 메이플스토리2는 오는 21일부터 5일간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며 보완점을 수정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 FPS 서든어택의 후속작 ‘서든어택2’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알파테스트에서 기본적인 게임성을 검증받았으며 기본적인 전투에서의 호평을 바탕으로 올해 넥슨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넷마블게임즈도 액션 RPG ‘엘로아’와 AOS 신작 ‘파이러츠:트레저헌터’로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넷마블은 1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두 신작의 설명과 함께 공개서비스 일자를 발표했다. ‘엘로아’는 오는 20일, ‘파이러츠:트레저헌터’는 2월 중 공개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엑스엘게임즈의 ‘문명 온라인’, 네오위즈게임즈의 ‘블레스’ 다음게임의 ‘검은사막’, 웹젠의 ‘루나:달빛 도적단’ 등 연내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PC온라인게임 터닝포인트 될까 =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에 5년간 총 23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진흥책을 내놨다. 오는 2019년까지 게임 제작에 총 220억원, 모태 펀드를 통해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며 게임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한동안 주춤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다시 집중하면서 전문가들은 올해가 온라인 게임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체부가 발행한 ‘201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0.3% 감소한 9조7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폭의 하락세지만 2008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마이너스 수치가 주는 충격은 크다.

그럼에도 게임사들이 모바일로 이동했던 중심축을 PC로 돌리며 침체기의 온라인 게임시장 부활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편승해 각국의 시장 상황에 맞게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열린 지스타 2014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우주와도 같은 게임시장 속에서 생존하려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도 “이번에 내놓은 온라인 게임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PC온라인 게임사업은 마지막”이라고 각오를 나타내기도 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게임사) 엔씨
(게임명) (출시 예상 일정)
마스터X마스터 상반기 테스트
리니지 이터널 상반기 첫 테스트
프로젝트 혼 미정

네오위즈게임즈
블레스 상반기 출시
애스커 상반기 출시
아이언사이트 상반기 출시
피어 온라인 미정

웹젠
뮤2 미정
루나:달빛 도적단 상반기 첫 테스트
프로젝트 MST 미정

엑스엘게임즈 문명 온라인 상반기 출시

넥슨
메이플스토리2 연내 출시
서든어택2 연내 출시
공각기동대 온라인 상반기 첫 테스트
페리아 연대기 미정
수신학원 아르피엘 상반기 첫 테스트
아이마 상반기 출시
트리 오브 세이비어 1월 첫 테스트
하이퍼유니버스 미정

위메이드 천룡기 연내 중국테스트

액토즈소프트 파이널 판타지 14 연내 출시

넷마블게임즈
엘로아 1월 20일 출시
파이러츠:트레저헌터 2월 예정

라이엇게임즈 소울워커 하반기 1차 테스트

엘엔케이로직 코리아 붉은보석2: 홍염의 모험가들 연내 출시

스마일게이트
로스트 아크 상반기 첫 테스트
아제라 연내 출시
스카이사가 상반기 첫 테스트



안팎서 치이는 PC온라인게임

두자릿수 증가세 보이던 수출, 작년 상반기엔 30%나 감소
국내선 외산에 밀려…야심작 ‘검은사막’ PC방 점유율 2%대

국내 PC온라인게임은 최근 이중고에 처해 있다. 점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내수시장에선 ‘리그오브레전드(LOL·이하 롤)’를 중심으로 한 외산 게임들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다. 국내 게임업체들이 PC온라인게임 신작들을 잇따라 출시하며 부활을 꾀하고 있지만, 상황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것이 외부의 시각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컴퓨터서비스 수출액은 15억78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억1860만 달러 증가했다. 컴퓨터 서비스 수출은 게임 다운로드 대가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 가공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모바일 게임 수출이 크게 성장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PC온라인게임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동안 국내 게임 수출은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다 2013년 2.9% 성장에 그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PC온라인게임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또한 2013년 국내 전체 게임시장(9조7198억원)에서 5조4523억원의 매출을 일으킨 PC온라인게임의 비중은 56.1%로, 2011년 대비 약 20%포인트 급감해 격세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기에 국내 PC온라인 게임시장도 라이엇게임즈의 롤과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 ‘스타크래프트2’,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외국업체들의 콘텐츠들로 쏠려있는 점도 국내 업체들로선 부담이다. 특히 롤은 최근 PC방 점유율에서도 30%대를 유지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저 충성도가 높다. 일례로 지난달 다음게임이 야심차게 출시한 PC온라인게임 ‘검은사막’ PC방 점유율 2%대에도 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게임업체들은 PC온라인게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주기가 짧고 개발이 손 쉬운 모바일게임에 비해 준비 기간과 비용은 많이 들지만 PC온라인게임이 갖는 콘텐츠 파워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게임업체인 라이엇게임즈와 블리자드 등이 모바일게임이 아닌, PC온라인게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임업계 퍼블리싱 관계자는 “일각에선 PC온라인게임이 죽었다는 성급한 전망도 내놓지만 여전히 유저층이 상당하다”며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며 병행하는 업체들의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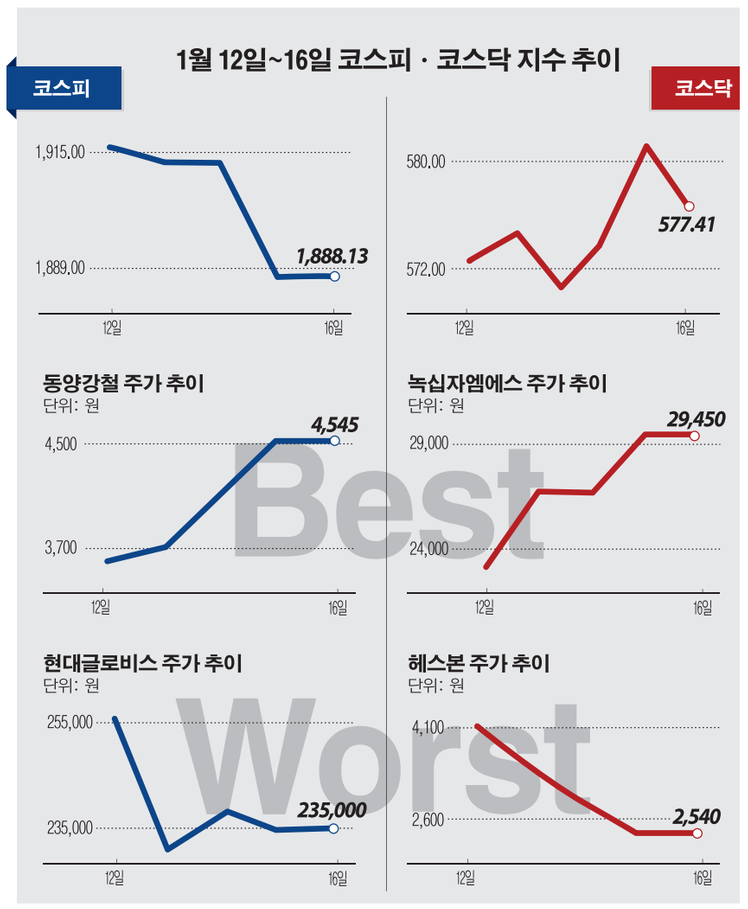
Market news

묻지마 급등 '동양강철'… 신사업 날개 '녹십자엠에스'

베스트&워스트
1월 12~16일

1월 셋 째주(12~16일) 코스피는 주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다. 대외 악재가 발목을 잡은 탓이다.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난주에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스위스 중앙은행의 최저환율제 폐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수는 1880선까지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6일 전주(1월 9일) 대비 36.57포인트(1.90%) 하락한 1888.13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전주 대비 상승 마감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20개월 만에 580선 돌파에도 성공했다. 지난 16일 코스닥 지수는 전주(1월 9일) 대비 4.42포인트(0.77%) 오른 577.41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723억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083억원, 919억원 씩을 순매수했다.



'한국화장품제조' 29.26%↑…화장품 4종목 상승세
'티웨이홀딩스' 저가항공 확대 기대감에 24.43%↑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무산 쇼크에 23.08% 하락

◇동양강철, '묻지마' 급등… 화장품株 강세 여전 =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주 가장 상승폭이 큰 종목은 알루미늄 압출소재 업체인 동양강철이다. 이 종목의 주가는 지난 12일 3190원으로 시작해 16일 4545원을 기록하며 42.48% 급등했다.

하지만 특별한 급등 사유는 없었다. 동양강철은 지난 16일 주가 급등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현저한 시황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으로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공시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동양강철에 이어 강세를 보인 종목은 한국화장품제조로 5거래일간 29.26%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주에는 한국화장품제조뿐만 아니라 한국화장품(24.32%), 한국콜마(17.85%), 코스맥스(15.19%) 등 화장품 관련주, 총 4개 종목이 주가상승률 상위 10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인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는 27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품목은 화장품(24%), 분유(16%), 가방(12.7%), 신발모자(11.2%), 의류(9.5%), 전자상품(7.2%) 순이었다.

여기에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제조업자개발생산(OEM/ODM) 업체들이 증설 싸이클 초입에 들어선 점 역시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티에이홀딩스는 저가항공 시장 확대 수혜 기대감에 주초 1만1050원이었던 주가가 1만3750원으로 24.43% 급등했다.

핀테크 관련주로 주목 받고 있는 유엔젤도 정부의 핀테크 육성방안이 전해진 뒤 지난 한 주간 18.6% 상승한 5290원에 마감했다.

이 외에도 카프로와 대원제약이 각각 23.34%, 17.85%씩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률 상위 10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무산에 '풀썩' =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다. 현대글로비스는 블록딜 무산 쇼크에 지난 12일 30만5500원이었던 주가가 16일 23만5000원으로 마감하며 5거래일 동안 23.08% 주저앉았다.

현대글로비스의 블록딜 무산은 그룹의 지배구조상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삼성에스디에스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주 삼성에스디에스 주가는 12.15% 빠지며 주가 하락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 특별한 이유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코아스가 지난주에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이었다. 12일 2400원에 시작한 주가가 16일 2050원으로 14.58% 하락한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기대감 저하에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2.72% 하락한 것.

이밖에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15.33%), IHQ(-15.09%), 현대리바트(-14.52%), 제일연마(-13.12%), 현대비앤지스틸(-11.84%), 이연제약(-11.75%) 등이 가 주가 하락폭이 큰 종목으로 꼽혔다.

문선영 기자 moon@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6일 시가총액	종가(원) 1월 9일	종가(원) 1월 16일	주가등락률(%)
동양강철	261	3,190	4,545	42.48
한국화장품제조	50	8,510	11,000	29.26
티웨이홀딩스	217	11,050	13,750	24.43
한국화장품	96	4,810	5,980	24.32
카프로	137	2,785	3,435	23.34
부산주공	31	1,820	2,205	21.15
유엔젤	70	4,460	5,290	18.61
대원제약	286	14,850	17,500	17.85
한국콜마	1,097	44,300	52,000	17.38
코스맥스	1,030	99,400	114,500	15.19

코스피 하락 10종목

이연제약	247	21,700	19,150	-11.75
현대비앤지스틸	213	16,050	14,150	-11.84
삼성에스디에스	20,428	300,500	264,000	-12.15
삼성엔지니어링	1,208	34,600	30,200	-12.72
제일연마	70	8,080	7,020	-13.12
현대리바트	539	36,500	31,200	-14.52
코아스	59	2,400	2,050	-14.58
IHQ	116	3,115	2,645	-15.09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368	72,400	61,300	-15.33
현대글로비스	8,813	305,500	235,000	-23.08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6일 시가총액	종가(원) 1월 9일	종가(원) 1월 16일	주가등락률(%)
녹십자엠에스	282	19,350	29,450	52.20
케이피티	20	2,615	3,890	48.76
3S	144	2,510	3,520	40.24
랩지노믹스	102	18,250	24,850	36.16
한국테크놀로지	56	1,570	2,050	30.57
소프트맥스	109	13,450	17,500	30.11
비씨월드제약	149	17,300	22,350	29.19
창해에탄올	133	16,100	20,150	25.16
에이디테크놀로지	99	19,800	24,700	24.75
에이씨티	110	14,450	17,950	24.22

코스닥 하락 10종목

웹젠	1,119	36,800	31,700	-13.86
판타지오	54	1,285	1,105	-14.01
아스트아시아홀딩스	62	1,985	1,705	-14.11
가비아	89	7,640	6,560	-14.14
재영솔루텍	53	1,950	1,665	-14.62
비아트론	94	10,250	8,730	-14.83
액토즈소프트	372	38,600	32,850	-14.90
이-글 벳	52	5,700	4,650	-18.42
고려신용정보	21	1,810	1,460	-19.34
헤스본	43	4,010	2,540	-36.66

※자료 : 에프앤가이드

◇녹십자엠에스, 신규사업 기대감에 급등 = 코스닥시장에서 지난주 가장 상승폭이 큰 종목은 녹십자엠에스로 이 종목의 주가는 지난 5거래일간 무려 52.20% 폭등했다.

녹십자엠에스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 16일 녹십자엠에스는 주가급등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타법인 출자를 통한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부가 녹십자엠에스가 속한 바이오 분야에 대해 투자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약 56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추천에 급등세를 보인 종목도 있다. KDB대우증권이 저평가된 우량 새내기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추천한 랩지노믹스가 지난 12일 1만8250으로 시작해 2만4850원으로 36.16% 상승한 것이다.

한국테크놀로지도 30.5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 12일 한국테크놀로지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이익이 13억6766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209억3552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0억2207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여기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30억원 규모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사물인터넷(IoT) 시장 성장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며 24.75% 오른 2만4700원을 기록했다.

소프트맥스는 대표 게임 창세기전4의 티저가 공개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 한주 동안 30.11%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 이 외에도 케이피티(48.76%), 3S(40.24%), 비씨월드제약(29.19%), 창해에탄올(25.16%), 에이시티(24.22%)등이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으로 꼽혔다.

◇헤스본, 3거래일 연속 하한가 행진 = 헤스본은 최근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으로 꼽혔다. 헤스본은 지난해 말 경영권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 다시 약세로 돌아섰고 한 주간 무려 36.6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랩지노믹스' 대우證 우량새내기 추천에 36.16%↑
'한국테크놀로지' 흑자전환 성공에 30.57% 올라
'헤스본' 경영권 변경 후 등락 반복 36.66% 하락

고려신용정보도 상장폐지를 면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12일 1810원으로 시작했던 주가가 16일 1460원으로 19.34%나 떨어졌다.

이-글 벳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의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으나 과도한 상승에 따른 반발 매도세 유입으로 지난주 18.42% 하락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물적 분할 소식에 전주 3만8600원이었던 주가가 16일에는 3만2850원까지 14.90% 급락했다. 지난 15일 액토즈소프트는 모바일 사업 부문과 파이널판타지14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비아트론, 이스트아시아홀딩스(-14.11%), 판타지오(-14.01%) 등이 주가 하락폭이 큰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문선영 기자 moon@

김영사

압도적 1위

반기문 리더십의 실체를 증명하다!



세계를 설득해낸 반전 드라마! 반기문의 유엔 7년을 밀착 취재한 단 하나의 기록

2007.1. 8대 유엔 사무총장 취임
2007.9. 기후대책 중요 의제 설정
2009.6. 세계 언론 집중 공격 연임 실패론 대두
2009.12.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극적 합의
2010.12. '아랍의 봄' 직격 비호 독재자들의 연쇄적 몰락
2011.4. 코트디부아르 전쟁 강력한 리더십 증명
2011.6. 화원국 만장일치 사무총장 연임 확정
2011.7. 유엔 중재와 설득으로 남수단 독립
2012.1. '아랍의 봄' 대응에 전 세계 언론의 극찬
2012.1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충돌 중재
2014.10. 기후대책, 식량안보 공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반기문, 나는 일하는 사무총장입니다 화제의 신간

중앙일보 부국장·국제선임기자 남정호 지음 | 396쪽 | 값 16,000원

TEL: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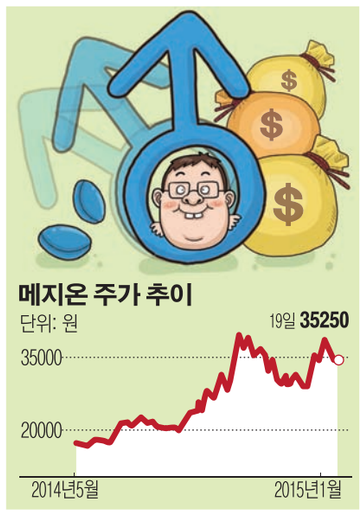
© Platon/Trunk Archive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메지온, 마일스톤 800만달러로 흑자전환 노린다

〈기술이전료〉

발기부전 치료제 '유데나필' 美 FDA 신약 허가신청
내달 입금 예정… 매출액 2배 달해 적자 타개 기대



메지온이 내달 발기부전치료제 '유데나필'의 마일스톤 800만 달러를 받는다. 올해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메지온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4일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유데나필에 대한 신약 허가신청(NDA)을 제출함에 따라 워너칠콧사(社)로부터 마일스톤 800만 달러(86억200만 원)를 받을 예정이다.

메지온이 지난 2008년 워너칠콧과 체결한 유데나필에 대한 라이센싱 아웃(Licensing-out) 계약에 따르면 유데나필에 대한 NDA를 FDA에 제출하면 마일스톤 800만 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계약에 따라 메지온은 지난 2009년 계약금 1100만 달러(약 118억5250만 원)를 지급 받았다.

이후 메지온이 판매 승인을 받고 제품을 출시하면 또 다시 워너칠콧으로부터 마일스톤 5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로열티 수익은 워너칠콧이 판매한 유데나필 매출액의 10%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조건상 각 신약개발 단계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받는 조건"이라며 "2월경 입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데나필은 연내 FDA 최종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FDA는 NDA 제출 시 약 10개월간 해당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토과정 및 내부 전문위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를 통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메지온은 유데나필이 최종 허가를 받을 경우 북미 시장에서 연간 2억5000만 달러(약 2693억7500만 원)에 이르는 매출이 발생하고 1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북미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연간 약 25억 달러(약 2조6937억 원)규모로 화이자의 비아그라, 릴리의 씨알리스가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지온의 올해 흑자전환 시나리오도 긍정적일 전망이다. 내달 입금되는 마일스톤이 메지온 매출액의 2배가량에 이르기 때문이다. 메지온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15억6615만 원, 영업손실 41억329만 원, 당기순손실 22억7942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에는 매출액 44억224만 원, 영업손실 24억7253만 원, 당기순손실 8억3075만 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마일스톤 입금으로 올해 흑자전환 시나리오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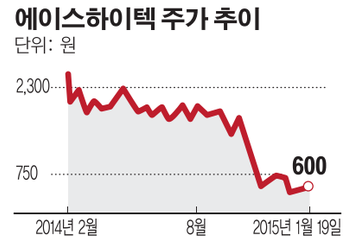
한편 메지온은 폰탄수술 환자 치료제의 경우 미국에서 임상 1·2상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이를 마치고 올 하반기 임상 3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동전주' 된 에이스하이텍 '슈퍼개미' 최대승 재등장

공시돋보기

지난달 499원까지 급락
159만7100주 추가매수
"경영참여 아닌 차익실현"



동전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슈퍼개미 최대승씨가 에이스하이텍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 2013년 보유주식을 팔면서 지분율을 4.65%를 낮췄던 최 씨가 16개월만에 에이스하이텍 공시에 재등장하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대승씨는 지난15일 159만7100를 주당 1151원에 장내매수했다. 이로써 최씨의 보유주식은 269만1000주이며 지분율은 2.01% 증가한 6.66%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7월 에이스하이텍의 지분을 취득, 매집에 나선지 한달만에 2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당시 최씨는 165만825주를 보유, 7.01%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어 매수 단가보다 50원 가량 높은 가격에 42만주를 매도해 시장에서는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으나, 60만주를 되사들이며 지분율을 다시 7%대로 올렸다. 최씨의 지분율은 1년 후인 2013년 8월 55만6925주를 매도하며 4.65%까지 떨어졌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에이스하이텍은 지난해 일본 바이오 업체 교토바이오파마를 인수하며 관심을 모았다. 경영권 인수 계약으로 교토바이오파마가 보유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WAP-8294A2, WAP-1, aRP/LG710, aRP/LG52)의 소유권과 라이선스도 함께 획득하게 됐다.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장비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던 업체가 단숨에 바이오 사업 기반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에이스하이텍은 이 소식이 알려질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해 2월 12일 250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장 마감 공시를 통해 경영권 인수 소식을 발표했다. 하지만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다. 계약이 확정되자 단기차익을 노린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

이후 주가가 보합세를 보이다 지난해 12월 경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주가가 급락을 지속했다. 이어 지난해 초 2675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같은 달 18일 81% 하락한 499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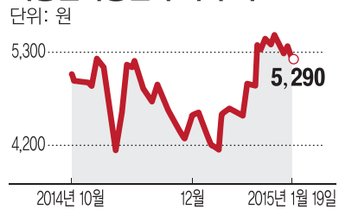
이렇듯 주가가 다시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며 동전주가 되자 최대승씨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분석된다. 최씨의 동전주 사랑은 대신정보통신 투자에서 시작됐다. 주당 486원에 매수한 대신정보통신 주가가 9개월간 두 배로 뛰며 이익을 맛본 것.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패턴을 지켜보면 경영 참여보다 차익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투자 역시 역시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미동전자통신, 블랙박스 "선 주문 1만5000대 돌파"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플러스 A'



미동전자통신은 신제품 블랙박스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플러스 A'가 현재까지 집계된 선 주문량만 1만5000대를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플러스 A'는 지난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블랙박스 '알바트로스 플러스'의 후속 제품이다. 기존 프리미엄 블랙박스의 솔루션 알고리즘과 최근 이슈인 메모리 포맷프리기능(NxFS)까지 탑재하고 경제성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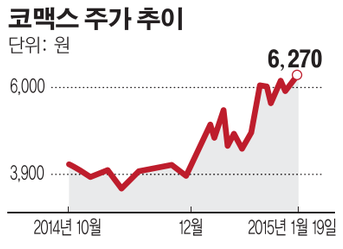
김범수 미동전자통신 대표는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플러스 A'는 판매 일주일 전부터 선 주문과 제품 문의 등이 이어지며 창사 이래 최대 선 주문량인 1만5000대 기록(총판 주문 기준)을 달성했다" 며 "출시 이후에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사는 프리미엄 블랙박스 선두기업으로서 경제성을 갖춘 제품 역시 프리미엄 인터페이스를 탑재해 성능과 품질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코맥스, 어린이집 CCTV 수혜 기대되네

의무화 법안 논의에 상승세
스마트홈제품 50종 출시도



코맥스가 올해만 50종이 넘는 스마트홈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한다면 관련 매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9일 코맥스 관계자는 "올해는 다른 가전제품 등과 연계할 수 있는 50여종의 스마트홈 신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맥스는 18~2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보안 박람회 '인터섹 2015'에 참가, CCTV 등 스마트홈 관련 보안 신제품 등을 공개하고 중동·인도 등 해외 마케팅을 확대한다. 최근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해킹 및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융합보안 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코맥스는 1970년대에 도어폰을 보급하며 대한민국 가정용 정보통신기기의 역사를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비디오 도어폰을 개발해 음성통신기기에서 영상통신기기로 시장을 변화시켰다. 2011년부터는 가속화된 네트워크 비디오폰의 성장과 함께 코맥스는 자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스마트홈·보안 사업에 진출했다.

전체인력의 25%가 스마트홈기기 연구개발(R&D) 인력으로 연간 4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해 독자기술로 원격보안, 스마트그리드, 홈모바일 등 30여개가 넘는 스마트홈 시스템 제품군을 구비했다. 스마트홈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0%에서 지난해 55%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CES에서는 생활 가전을 한데 아우르는 스마트홈이 대세를 이뤘다. IT업계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이 꼽히면서 삼성 등 글로벌 업체들이 차세대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국내 주식 시장에는 코맥스를 비롯해 코콤, 현대통신, 에스넷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를 통해 홈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내놓는 곳이 수익성 개선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 정치권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점도 코맥스에는 긍정적이다.

송영록 기자 syr@

제이티, 마이크론에 번인소터 27억 수주

작년 21억 공급계약 후 두번째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업체인 제이티는 마이크론에 27억6000만원 규모의 메모리 번인소터(Burn-In Sorter)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이크론에 공급하는 메모리 번인소터는 반도체 메모리 D램의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Burn In 공정의 처리를 돕는 자동정렬(Sorting) 시스템이며, 개별 제품의 이력 관리를 위한 2D 데이터 매트릭스 디코딩(Data Matrix Decoding) 시스템이 통합된 설비다.

기존 성능 대비 생산성 68% 증가를 달성했으며, 별개의 공정으로 분류돼 수작업에 의존하던 SBT(Single Board Test) 기능이 자동 번인소터에 통합 구현된다. 이는 마이크론의 자동화 및 비용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제이티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12월에도 같은 제품을 21억원 공급계약한 이후 연이은 계약수주"라며 "제이티 제품의 우수한 성능이 검증 된 결과이며, 반도체 메모리 수요증가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향후에도 그 성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제이티가 공급하는 메모리 번인소터는 마이크론과 1년여 이상 공동 개발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완성한 제품이다. 이번에는 마이크론의 싱가폴 공장에 설치되며 향후에는 싱가폴을 비롯해 중국 시안공장에도 독점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中 동조장태, 아이넷스쿨 '핀테크'로 한국 진출?

인터넷 금융브랜드 '회심' 개발중
국내서 클라우드 방식 기술 지원



아이넷스쿨이 실질적 모기업인 중국 동조장태투자그룹과 '핀테크' 사업을 구상중이다. 신 성장 동력을 통해 장기간 계속된 적자를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규섭 아이넷스쿨 전무는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아이넷스쿨 15주년 신년회'에서 "동조장태투자그룹의 금융 계통 자회사 '혜흠'이 개발 중인 인터넷 금융 브랜드 '회심(會心)'이 아이넷스쿨을 통한 한국 진출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개발 단계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무는 이어 "모바일 전자결제와 광고대행, 중국 유학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동조장태 인터넷 금융사업과 접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조장태의 인터넷 금융 사업이 국내에 진출한다면 그 첫 교두보는 아이넷스쿨의 모바일 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넷스쿨은 모바일 전자결제와 광고대행, 중국 유학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동조장태투자그룹의 인터넷 금융사업과 접목할 계획이다.

동조장태투자그룹은 아이넷스쿨의 실질적인 대주주다. 이 그룹은 아이넷스쿨의 최대주주인 리치와이즈 홍콩 디벨럽먼트(지분율 13.99%)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이자 아이넷스쿨 2대 주주인 조인트 스카이 인베스트먼트(8.15%)의 관계사다.

아이넷스쿨은 모회사와의 협력 외에도 올해 모바일 관련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앱 개발은 물론이고 현재 미국 전자결제 관련 업체에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이 성사 직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무는 "미국 모바일 앱 관련 업체와 어그리먼트까지 작성 됐고 서명만 남은 상태"라며 "국내로 치면 '배달통', 'YAP(얍)' 등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자결제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넷스쿨은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기술 지원에 나선다"면서도 사업의 구체적인 완성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아이넷스쿨이 활발히 신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장기간 지속된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 교육 전문 기업인 아이넷스쿨은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누적 매출 91억원, 1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2012년 한 해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5년에 걸쳐 영업적자 상태다.

다만 신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적자 탈출이 용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년회에 참석한 왕열가 동조장태 회장 겸 아이넷스쿨 최고경영자(CEO)는 "아이넷스쿨을 동조장태 사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모바일 강화" 액토즈소프트 물적 분할

3월 1일 액토즈게임즈 설립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모바일 사업 부문 및 파이널판타지14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키로 결정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모바일게임 사업부문 및 온라인게임 '파이널판타지 14' 퍼블리싱 사업부문과 관련 종속회사와 관계회사 지분일체를 분할해 신설회사 액토즈게임즈를 설립한다.

분할 방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이다. 분할 이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계속 존속하게 되며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인 액토즈게임즈(가칭)는 기존 모바일 사업 부문과 올해 서비스 예정인 온라인게임 '파이널판타지'14를 비롯해 신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 서비스 사업 등을 담당한다.

또한, 플레이파이게임즈, 메이유, 액토즈소프트 유럽 등 분할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회사 지분 등도 액토즈게임즈로 이전된다. 분할 기일은 3월 1일로 분할 대상 부문 모든 임직원의 고용 및 퇴직금 등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정유현 기자 yhssoo@

한빛소프트, ISMS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한빛소프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안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를 정식으로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다.

개인 정보 유출 및 시스템 해킹과 같은 인터넷 침해 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정보 보호 시스템과 전산 보안망 구축 등 모든 기업 보안이 안정적으로 운영중이고, 신뢰성 또한 검증 받게 된다.

이번 인증에 따라 한빛소프트에서 운영중인 사이트를 방문하는 회원들의 정보 보호 및 시스템에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정부 기관에서 검증된 보안 관련 우수 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대외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정유현 기자 yhssoo@

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 S' 아카데미 20TH ANNIVERSARY

스무살의 아카데미가 모두의 아카데미로

배우고 싶은 스무살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흔살도 모두 학생이 된다!
지금 S 아카데미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IT 제품을 만나보세요



인텔 인사이드®의 놀라운 성능

삼성전자 S' 아카데미 20th


인텔® 코어™ M 프로세서의
삼성 노트북 9 2015 Edition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삼성 노트북 9 Lite(NT910S3K)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삼성 올인원PC 7 Curved

※인텔, 인텔 로고, 인텔 인사이드, 인텔 코어 및 코어 인사이드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인텔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IT 제품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기회

event 1 20주년 S아카데미 기념, **2020명**에게 럭키박스를 쏜다!

행사기간(1/7~3/31) 내 행사모델 구매 후, 시리얼번호를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2,020명에게
노트북 9 2015 Edition 등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1차:1/23 ~ 2/25 ▶2차:2/26 ~ 3/31 **당첨자 발표:** ▶삼성전자 홈페이지 내 공지

event 2 S아카데미가 최대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쏜다!

올인원PC 7 Curved, 노트북 9 2015 Edition 등 행사 모델 구매 시 최대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1/7 ~ 3/31

intel inside CORE i3 intel inside CORE i5 intel inside CORE i7

www.s-academy.co.kr ※행사 모델 및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S 아카데미 홈페이지 해당 이벤트란 또는 사전에 구입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행사 참여점 및 행사모델 구매 시에 한하며, 매장에 따라 혜택 증정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포인트, 상품권, 캐시백 등)

삼성전자 SAMSUNG